

# SBM

Self Bible Meditation for Maturity

## 로마서

ROM · 서신서 · 헬라어

관찰 핵심 정리 · 완성 16장 · 네다바웨이 Observatory

# 로마서 1장

ROM-001 · 서신서 · 헬라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선언에서 시작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가 못이 되고, 진노와 우상숭배의 어둠으로 내려간다.

## 관찰된 사실

### 로마서 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편지의 형식 자체 — 발신자 "종 바울"(1절), 수신자 "로마의 사랑받는 자"(7절).
- 소품 = "빛진 자"(14절), "우상"(새·짐승·곤충의 형상, 23절).
- 죄목의 긴 나열(29-31절): 불의·추악·탐욕·시기·살인·분쟁 등.
- euangelion(복음)이 1·9·15·16절에 거듭 나옴.
-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하박국 2:4 인용(배경).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1-17절은 따뜻·환함(인사·명제), 18절부터 어두움(진노). 톤의 낙차.
- 16-17절이 못처럼 박힘 — 짧은데 무게.
- 18절이 gar(왜냐하면)로 이어져 근거처럼 시작됨.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 복음으로 열림.
- 32절: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 죄를 즐기는 어둠으로 닫힘.
- 빛으로 열려 진노로 닫힌다. 16-17절 명제가 가운데 환하게 박힘.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바울(말함) / 로마 성도(들음) / "그들"(18절~, 진리를 막는 익명의 무리).
- 상황 = 명제(16-17)와 그 반대편(18-32)의 증명.
- 사상 = "바꾸다"(metallasso, 25·26절) — 영광을 우상으로, 진리를 거짓으로.
- "내버려 두사"(paradidomi) 3회 후렴 — 24·26·28절.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7): 인사 — 종·복음·사도직, 은혜와 평강.
- 컷 2 (8-15): 감사·사모 — "보기 원함", "빛진 자".
- 컷 3 (16-17): 명제 — "부끄러워 않음", "의인은 믿음으로".
- 컷 4 (18-23): 진노의 드러남 — 알 만한 것, 영광을 우상으로.

- 컷 5 (24-32): 세 번의 "내버려 두사", 죄목 목록.

#### 6 – (1) 원어 카드

- euangelion(εὐαγγέλιον) — 복음, 좋은 소식. 1·9·15·16절.
- dikaiosyne(δικαιοσύνη) —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17절).
- pistis(πίστις) — 믿음. "믿음에서 믿음으로"(17절).
- apokalyppto(ἀποκαλύπτω) — 나타나다·드러나다. 의(17)와 진노(18)가 같은 동사로.
- orge(ὀργή) — 진노. 18절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 metallasso(μεταλλάσσω) — 바꾸다. 25·26절.
- paradidomi(παραδίδωμι) — 내버려 두다·넘겨주다. 24·26·28절 후렴.

#### 6 – (2) 문학 구조

- 인사(1-7) → 감사(8-15) → 명제(16-17) → 진노 강론(18-32)의 네 묶음.
- "내버려 두사" 후렴 3회(24·26·28).
- 의(17)와 진노(18)가 같은 동사 apokalyppto("나타나다")로 대구.
- 본문이 결론을 직접 박는 대목 — 20절("핑계하지 못할지니라").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하박국 2:4 인용. 구약을 명제의 뜻으로 삼음.
- 로마는 바울이 아직 가 보지 못한 교회(13절) — 첫 대면 편지의 정중함이 인사 길어로 나타남(배경).
- 23절의 새·짐승·곤충 형상은 당시 이방 우상의 양식(배경으로만).

#### 6 – (4) 교차 참조 노트

- 롬 1:17 ↔ 합 2:4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 롬 1:17 ↔ 롬 3:21-22 (하나님의 의의 나타남)
- 롬 1:18 ↔ 롬 2:5 (진노의 날)
- 롬 1:23 ↔ 시 106:20 / 출 32 (영광을 형상으로 바꿈)
- 롬 1:16 ↔ 롬 10:11-13 (믿는 모든 자에게)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한 사람이 자기를 "종"이라 소개하며 편지를 연다. 복음과 자기 부름을 길게 풀고서야 로마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빈다. "너희를 보기 원한다"며 빛진 자임을 말하고, 이어 못처럼 박는다 —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환한 명제 뒤로 톤이 내려간다.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알 만한 것이 보였는데도 영광을 우상으로 바꾼 사람들이 그려진다. "내버려 두사"가 세 번 울리고, 죄목이 줄줄이 쏟아지며,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는 어두운 한 줄로 닫힌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 의인은 믿음으로"
- 초벌 부제: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에서, 드러나는 진노까지"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하박국 인용·우상 양식·문학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내버려 두사"(24:26-28)가 예정·심판 교리로 굳지 않도록 → paradidomi 위치만 기록.
- "의인은 믿음으로"가 이신칭의 교리 설명으로 번지지 않도록 → 합 2:4 인용 위치만 보존.
- 18-32절의 죄목 목록을 도덕적 정죄로 확대하지 않고 어휘 분포로만 기록.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로마서 1장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환한 명제를 박고, 그 반대편에 진노 아래 있는 인류의 어둠을 길게 펼치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긴 인사로 복음과 사도직을 풀고서야 로마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빈다. 그리고 못처럼 박는다 —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16-17절). 그 환한 명제 바로 뒤에서 톤이 내려가,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영광을 우상으로 바꾼 사람들이 그려진다. "내버려 두사"가 세 번 울리고, 죄목이 줄줄이 쏟아지며 장이 닫힌다. 빛과 어둠이 한 장 안에 나란히 놓인다.

####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편지 형식이 무대 — 종 바울(1)·로마 성도(7). 소품 = 빛진 자(14)·우상(23). euangelion이 거듭. 합 2:4 인용(17).

단계	핵심 발견
2 첫 느낌·분위기	1-17절 환함, 18절~ 어두움. 명제가 못처럼 박힘. gar로 근거가 이어짐.
3 시작과 끝	시작 — 복음을 위한 택정(1). 끝 — 죄를 즐김(32). 빛으로 열려 어둠으로 닫힘.
4 등장인물·상황·사상	바울 / 로마 성도 / "그들". 사상 = "바꾸다"(metallasso). "내버려 두사" 3회.
5 장면 컷	컷 1 인사(1-7). 컷 2 사모(8-15). 컷 3 명제(16-17). 컷 4 진노(18-23). 컷 5 내버려 두사·죄목(24-32).
6 의문·발견·정보	긴 인사. "부끄러워 앓음"의 부정형. "믿음에서 믿음으로". 20절 직접 결론. paradidomi 후렴.
7 동영상	종의 인사 → 사모 → 명제 → 진노의 드러남 → 세 번의 내버려 둠 → 죄목으로 흐름.
8 초별 제목·부제	제목 —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 의인은 믿음으로". 부제 —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에서, 드러나는 진노까지".
9 동영상 안 겹기·기도	편지를 받아 읽는 자리에 서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을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못처럼 박힌 명제:** 긴 인사 끝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17절)가 짧게 박힌다. 무게는 길이가 아니라 자리에 있다.
2. **결 2 — 같은 동사의 대구:** 의가 "나타나고"(17절) 진노가 "나타난다"(18절). 같은 apokalyppto가 빛과 어둠을 함께 연다.
3. **결 3 — 세 번의 내버려 둠:** "내버려 두사"(24·26·28절)가 후렴처럼 세 번 놓인다. 본문은 진노를 사건이 아니라 넘겨줌으로 그린다.

###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롬 3:21-22 (하나님의 의의 나타남), 롬 2:5 (진노의 날), 롬 10:11-13 (믿는 모든 자에게).
- 다른 권 — 합 2:4 (의인은 믿음으로, 17절 인용), 시 106:20 (영광을 형상으로 바꿈).
- 정경 흐름 — 1:16-17의 명제는 로마서 전체의 머릿돌로, 3·5·8장의 논증이 이 한 줄을 풀어 간다.

###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한 사람이 종의 인사를 받아 읽는 자리에 선다.
- 멈춤 1: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부정형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가 박히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내버려 두사"가 세 번 울리는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복음의 빛과 진노의 그늘이 한 장에 있다\*는 결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한 줄 앞\*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인사가 복음을 길게 풀고서야 평강에 닿는다
- [x]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가 선언된다
- [x]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가 못처럼 박힌다

- [x]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 [x] 영광이 우상으로 바뀐다
- [x] "내버려 두사"가 세 번 올린다
- [x] 끝은 죄를 즐기는 어두운 한 줄이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의인은 믿음으로.

## 미해결 질문

로마서 1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인사(1-7절)가 이토록 긴가?**

- 복음·사도직을 길게 폰 뒤에야 "은혜와 평강"에 닿음.
- 첫 대면 편지의 정중함인지, 명제를 위한 준비인지 — 보류.

**Q2. 왜 굳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16절)인가?**

- 부정형으로 말함 — 부끄러워할 자리가 전제된 듯.
- 그 부정형의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위치만 보존.

**Q3. "믿음에서 믿음으로"(17절)는 무엇에서 무엇으로인가?**

- ek pisteos eis pistin — 풀이가 갈리는 어구.
- 뜻은 답하지 않고 어구만 기록.

**Q4. 진노는 현재인가 미래인가?**

- 18절은 "나타나나니"(현재), 24-28절 "내버려 두사"는 이미 일어난 일처럼 읽힘.
- 시제의 엇갈림만 기록, 관계는 보류.

**Q5. 세 번의 "내버려 두사"는 단계인가 반복인가?**

- 24·26·28절에 같은 paradidomi가 후렴처럼.
- 점층인지 동일 사건의 반복인지 — 분포만 보존.

**Q6. 명제(16-17)와 진노(18-32)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 의의 나타남과 진노의 나타남이 같은 동사로 대구.
- 나란히 둠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로마서 2장

ROM-002 · 서신서 · 헬라어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시작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심"이 못이 되고, 율법과 마음의 할례로 안으로 파고든다.

## 관찰된 사실

### 로마서 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재판정 — "하나님의 심판"(2:3), "진노의 날"(5), "행한 대로 보응"(6).
- 소품 = 율법(12절~ 뽁뽁), 할례(25-29), 양심(15).
- 짝지은 소재 — "환난과 곤고"(9)/"영광과 존귀와 평강"(10), "유대인/헬라인", "율법 있는 자/없는 자"(12).
- peritome(할례)가 살에서 마음으로 옮겨감(28-29).
- 24절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도다"는 사 52:5 인용(배경).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1장의 "그들"에서 2장의 "너"로 손가락이 돌아섬.
- 법정의 공기 — 심판·보응·진노의 날.
- 11절 "외모로 취하지 않으심"이 한가운데 못처럼.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 바깥을 향한 손가락으로 열림.
- 29절: "칭찬이... 하나님에게서니라" — 안쪽·은밀함으로 닫힘.
- 밖에서 안으로, 외모에서 마음으로 좁혀짐. 11절이 축.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바울 / "남을 판단하는 사람" / 유대인 / 헬라인 / 이방인(14).
- 상황 = 거울 앞 추궁("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행하느냐", 3).
- 사상 = "외모가 아니라" —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13), 표면이 아니라 이면(28-29).
- 6-11절 선/악 대칭 → 11절이 "외모로 취하지 않으심"으로 봉합.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5): 판단하는 자 추궁 — "진노를 쌓는도다".
- 컷 2 (6-11): 행한 대로 보응, 선/악 대칭, "외모로 취하지 않으심".
- 컷 3 (12-16): 율법 있는 자/없는 자, 양심이 증거, "은밀한 것을 심판".
- 컷 4 (17-24): 유대인에게 — "율법을 자랑하면서 범하느냐".

- 컷 5 (25-29): 할례 — "마음의 할례", 표면/이면 유대인.

## 6 — (1) 원어 카드

- krima(κρίμα) — 심판·판결. 2·3절.
- metanoia(μετάνοια) — 회개. 4절 "인자하심이 회개케 하심".
- nomos(νόμος) — 율법. 12-27절에 뻑뻑.
- peritome(περιτομή) — 할례. 25-29절, 살→마음.
- syneidesis(συνείδησις) — 양심, "함께 앎". 15절.
- krypton(κρυπτόν) — 은밀한 것. 16절, 28-29절 "이면"과 결을 같이함.
- makrothymia(μακροθυμία) — 오래 참으심. 4절.

## 6 — (2) 문학 구조

- 추궁(1-5) → 보응 대칭(6-11) → 율법·양심(12-16) → 유대인 책망(17-24) → 할례(25-29)의 다섯 묶음.
- 6-11절의 선/악 교차 대칭(7·8 / 9·10) → 11절 봉합.
- "율법"이 12절부터 후렴처럼 반복.
- 영(pneuma)/문자(gramma) 대비로 끝맺음(29).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24절은 사 52:5 인용 — 이방인 중 하나님 이름이 모독받음(배경).
- 할례는 유대 정체성의 표지(창 17) — 본문이 이를 "마음"으로 옮김(배경으로만).
-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짝은 1:16의 "먼저는 유대인에게요"와 같은 결(배경).

## 6 — (4) 교차 참조 노트

- 롬 2:24 ↔ 사 52:5 (이름이 모독받음)
- 롬 2:29 ↔ 신 30:6 / 렘 4:4 (마음의 할례)
- 롬 2:6 ↔ 시 62:12 / 잠 24:12 (행한 대로 갚으심)
- 롬 2:11 ↔ 신 10:17 / 행 10:34 (외모로 취하지 않으심)
- 롬 2:13 ↔ 약 1:22-25 (행하는 자)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1장의 어두운 목록을 듣던 한 사람을 글이 갑자기 향해 돌아선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너도 핑계하지 못한다." 인자하심이 회개로 인도하려는데 완고한 마음은 진노를 쌓는다고 한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며 선과 악을 짝지어 늘어놓고, 그 한가운데 못을 박는다 —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율법 없는 이방인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면 양심이 증거가 된다.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에게 "자랑하면서 범하느냐" 묻고, 끝으로 할례를 살에서 마음으로 옮긴다 —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칭찬은 하나님에게서니라."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 마음의 할례"
- 초벌 부제: "판단하는 손가락에서, 마음의 할례까지"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사 52:5 인용·할례 표지·문학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13절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가 행위구원 교리로 굳지 않도록 → 1장 "믿음으로"와의 긴장은 미해결 질문으로 보류.
- 14-15절 "본성으로 율법의 일"이 자연신학 논증으로 번지지 않도록 → 어휘·위치만 기록.
- "마음의 할례"가 신학 명제로 확정되지 않도록 → pneuma/gramma 대비만 보존.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로마서 2장은 남을 판단하는 자리를 거울 앞에 세우고, "외모로 취하지 않으심"을 축으로 외모에서 마음의 할례로 파고드는 장이다.

**한 문단:** 1장에서 "그들"을 향하던 손가락이 2장에서 "너"에게로 돌아선다. 인자하심이 회개로 인도하려는데 완고한 마음은 진노를 쌓고, 본문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며 선과 악을 짝짓는다. 그 한가운데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11절)가 못처럼 박힌다. 율법 없는 이방인의 양심도,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의 범법도 같은 저울에 놓이고, 마지막엔 할례가 살에서 마음으로 옮겨가며 닫힌다.

####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재판정 — 심판(2·3)·진노의 날(5). 소품 = 율법·할례·양심. peritome가 살→마음. 사 52:5 인용(24).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2 첫 느낌·분위기	"그들"→"너"로 손가락이 돌아섬. 법정의 공기. 11절이 못.
3 시작과 끝	시작 — 판단하는 사람(1). 끝 — 하나님의 칭찬(29). 밖에서 안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바울 / 판단자 / 유대인·헬라인·이방인. 사상 = "외모가 아니라". 6-11절 대칭.
5 장면 컷	컷 1 추궁(1-5). 컷 2 보응 대칭(6-11). 컷 3 율법·양심(12-16). 컷 4 유대인 책망(17-24). 컷 5 마음의 할례(25-29).
6 의문·발견·정보	진노 속 인자(4). 본성으로 율법(14-15). 13절과 1:17의 긴장. 영/문자 대비(29).
7 동영상	돌아선 손가락 → 인자와 진노 → 외모로 취하지 않으심 → 양심·책망 → 마음의 할례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 마음의 할례". 부제 — "판단하는 손가락에서, 마음의 할례까지".
9 동영상 안 걸기·기도	거울 앞에 서서 판단하던 손가락을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돌아선 손가락:** 1장의 "그들"이 2장에서 "너"가 된다. 본문은 정죄의 시선을 듣는 자에게로 되돌린다.
- 결 2 — 통합하는 못:** 6-11절의 선/악 대칭이 "외모로 취하지 않으심"(11절)으로 통합된다. 같은 저울이 유대인과 헬라인 위에 놓인다.
- 결 3 — 살에서 마음으로:** 할례가 표면에서 이면으로, 육신에서 마음으로, 문자에서 영으로 옮겨간다 (28-29절). 본문은 표지를 안쪽으로 끌고 들어간다.

###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롬 1:16** ("먼저는 유대인에게"), **롬 1:17** ("믿음으로"와의 긴장), **롬 8:4**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짐).
- 다른 권 — **사 52:5** (24절 인용), **신 30:6** / **렘 4:4** (마음의 할례), **시 62:12** (행한 대로 갚으심).
- 정경 흐름 — 2장은 "유대인도 예외 없음"을 세워, 3장의 "의인은 없나니"로 가는 다리를 놓는다.

###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한 사람이 남의 죄목을 듣다가 거울 앞에 세워진다.
- **멈춤 1:** "인자하심이 회개로 인도한다"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외모로 취하지 않으심"이 박히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할례가 마음으로 옮겨가는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칭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판단하던 손가락을 내려놓는 자리\*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판단하는 자가 거울 앞에 세워진다
- [x] 인자하심이 회개로 인도한다
- [x]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가 박힌다
- [x] 율법 없는 자의 양심이 증거가 된다
- [x] 율법을 자랑하면서 범하느냐고 묻는다
- [x] 할례가 마음으로 옮겨간다
- [x] 끝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칭찬이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외모로 취하지 않으심.

## 미해결 질문

로마서 2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1장의 "그들"이 왜 2장에서 "너"로 바뀌는가?

- 손가락의 방향이 바깥에서 듣는 자에게로 돌아섬.
- 그 전환의 까닭은 본문이 직접 말하지 않음. 위치만 보존.

Q2. "인자하심"(4절)이 진노 한가운데 왜 끼어드는가?

- 심판의 강론 속에 회개로의 인도가 한 번 놓임.
- 인자와 진노의 병치만 기록, 관계는 보류.

Q3.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14-15절)는 무엇인가?

- 율법 없이도 율법의 일을 행하는 자리가 있다고 함.
- 본성·양심의 무게는 답하지 않고 어구만 기록.

Q4.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13절)와 "믿음으로"(1:17)는 어떻게 함께인가?

- 행함과 믿음이 두 장에 나란히 놓임.
- 두 어구의 병치만 보존, 관계는 묵상으로 이월.

Q5. 할례는 왜 살에서 마음으로 옮겨가는가?

- 표면적/이면적, 육신/마음, 문자/영의 대비(28-29).
- 옮김의 까닭은 본문이 명시하지 않음. 대비만 기록.

Q6. "은밀한 것을 심판"(16절)의 은밀함은 어디까지인가?

- krypton이 16절과 28-29절을 잇는 듯.
- 은밀함의 범위는 답하지 않고 어휘 분포만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로마서 3장

ROM-003 · 서신서 · 헬라어

"의인은 없나니"가 인용으로 못박히고,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그리고 화목제물이 한 장에 모인다.

## 관찰된 사실

### 로마서 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전반(1-20)은 법정 —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심판 아래"(19). 후반(21-31)은 성소 결 — "화목제물".
- 소품 = 피(25), 속량(24), 자랑(27).
- 10-18절은 신체로 훑는 인용 사슬 — 목구멍·혀·입술·입·발·눈.
- hilaster(화목제물)은 70인역 "속죄소"(시은좌)에 쓰인 단어(배경).
- "다/모든"이 반복 — 9·19·23절.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앞은 빠른 문답, 10-18절은 바닥(어둠), 21절 "이제는"에서 빛으로 전환.
- "믿음"과 "율법"이 줄곧 부딪침(28).
-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가 반복되며 반론을 막음.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냐" — 율법·할례 물음으로 열림.
- 31절: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 율법 세움으로 닫힘.
- 율법 물음으로 열려 율법 세움으로 닫히되, 21-26절 "이제는"의 빛이 가운데.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바울 / 가상 반론자("하나님은 불의하시냐", 5) / 유대인·이방인.
- 상황 = 토론 — 반론 세움 →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4·6)로 막음.
- 사상 = "차별이 없느니라"(22) — 모두 죄를 범함(23).
- dikaios("의롭다 하다")가 20·24·26·28·30절에 거듭. "값 없이 그의 은혜로"(charis, 24).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8): 유대인의 마음 — 빠른 문답, "하나님은 미쁘시다".
- 컷 2 (9-18): "의인은 없나니" — 신체로 훑는 인용 사슬.
- 컷 3 (19-20): "모든 입을 막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
- 컷 4 (21-26): "이제는" — 믿음으로 의, 화목제물, 그의 피.

- 컷 5 (27-31): 네 번의 문답 — 자랑 없음, 믿음의 법, 율법을 세움.

#### 6 — (1) 원어 카드

- dikaios(δικαίω) — 의롭다 하다. 20·24·26·28·30절.
- pistis(πίστις) — 믿음. 22·25·26·28·30·31절.
- charis(χάρις) — 은혜. 24절 "그의 은혜로".
- apolytrois(ἀπολύτρωσις) — 속량, 값을 치러 풀어줌. 24절.
- hilasterion(ἱλαστήριον) — 화목제물·속죄소. 25절.
- haima(αἷμα) — 피. 25절 "그의 피로써".
- kauchesis(καύχησις) — 자랑. 27절 "자랑할 데가 어디냐".

#### 6 — (2) 문학 구조

- 문답(1-8) → 인용 사슬(9-18) → 입막음(19-20) → "이제는"(21-26) → 네 문답(27-31)의 다섯 묶음.
- "이제는"(21)이 어둠과 빛의 경첩.
- 27-31절은 짧은 질문·대답 네 번의 연속.
- 26절에 "의로우심"과 "의롭다 하심"이 한 문장에 동거.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10-18절은 시 14:53편, 5:9, 140:3, 10:7, 사 59:7-8, 시 36:1을 엮은 인용 사슬(배경).
- "화목제물"(hilasterion)은 레위기 16장 속죄일의 시은좌를 떠올리게 함(배경으로만).
- "율법의 행위"는 1세기 유대 정체성 표지(할례·안식일·음식법)를 포함하는 표현으로 읽히기도 함(배경, 풀이는 보류).

#### 6 — (4) 교차 참조 노트

- 롬 3:10-18 ↔ 시 14:1-3 / 사 59:7-8 (인용 사슬)
- 롬 3:20 ↔ 시 143:2 (행위로 의롭다 함이 없음)
- 롬 3:25 ↔ 레 16 / 히 9:5 (속죄소·화목제물)
- 롬 3:21 ↔ 롬 1:17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
- 롬 3:28 ↔ 갈 2:16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빠른 문답으로 장이 열린다.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냐 — 범사에 많다." 반론자가 끼어들고 "결코 그렇지 아니다"로 번번이 막힌다. 그러다 인용의 사슬이 쏟아진다 —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목구멍·혀·입술·입·발·눈을 훑으며 바닥까지 내려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심판 아래" 놓인다. 그때 "이제는"이라는 한마디로 무대가 환해진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믿음으로 나타났으니, 차별이 없다." 성소의 자리가 열려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자기도 의로우시며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고 한다. 끝으로 네 번의 문답 — "자랑할 데가 없다", "믿음의 법으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율법을 굳게 세운다" — 으로 닫힌다.

## 8 초별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별 제목: "의인은 없나니 —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 초별 부제: "의인은 없는 바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까지"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인용 사슬·시은좌·문학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별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화목제물"(hilasterion)이 속죄 신학 체계로 굳지 않도록 → 70인역 시은좌 배경·위치만 기록.
- 28절과 31절("율법의 행위가 아니라"/"율법을 세운다")의 긴장은 미해결 질문으로 보류.
- "값 없이"와 "속량"의 병치를 교리로 합치지 않고 같은 절의 두 결로만 보존.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장의 골격

**한 문장:** 로마서 3장은 "의인은 없나니"의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이제는"이라는 한마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과 화목제물을 향해 올라서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빠른 문답으로 유대인의 나음을 짚다가, 시편·이사야를 엮은 인용 사슬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를 쏟아낸다. 목구멍부터 눈까지 신체를 훑고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심판 아래" 놓인다. 그 바닥에서 "이제는"(21절)이 무대를 환하게 돌려,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차별 없이 믿는 모든 자에게, 그의 피로 화목제물이 선포된다. 끝은 네 번의 짧은 문답으로 "율법을 폐하지 않고 도리어 굳게 세운다"에 닿는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법정(1-20) → 성소 결(21-31). 소품 = 피·속량·자랑. 신체로 훑는 인용 사슬. hilasterion=시은좌(배경).
2 첫 느낌·분위기	빠른 문답 → 바닥(10-18) → "이제는"에서 빛. 믿음과 율법이 부딪침.
3 시작과 끝	시작 — 유대인의 나움(1). 끝 — 율법을 세움(31). 율법으로 열려 율법으로 닫힘, 가운데 "이제는" 빛.
4 등장인물·상황·사상	바울 / 가상 반론자 / 유대인·이방인. 사상 = "차별이 없느니라"(22). dikaios 거둠.
5 장면 컷	컷 1 문답(1-8). 컷 2 "의인은 없나니"(9-18). 컷 3 입막음(19-20). 컷 4 "이제는"(21-26). 컷 5 네 문답(27-31).
6 의문·발견·정보	인용 사슬.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20). 의로우심·의롭다 하심 동거(26). "값 없이"와 "속량".
7 동영상	빠른 문답 → 인용 사슬의 바닥 → "이제는" → 화목제물 → 율법 세움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의인은 없나니 —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부제 — "의인은 없는 바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까지".
9 동영상 안 겹기·기도	모든 입이 막히는 자리에 서서 "이제는"의 빛을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신체로 내려가는 바닥:** 10-18절이 목구멍·혀·입술·입·발·눈을 훑는다. 본문은 죄를 추상이 아니라 몸으로 그린다.
2. **결 2 — "이제는"의 경첩:** 21절의 "이제는"이 어둠과 빛을 가른다. 같은 율법 물음 사이에 빛이 박힌다.
3. **결 3 — 한 문장의 두 결:** 26절은 "자기도 의로우시며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을, 24절은 "값 없이"와 "속량"을 한자리에 둔다. 본문은 두 결을 합치지 않고 나란히 둔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롬 1:17**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 **롬 4**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믿음), **롬 5:9**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
- 다른 권 — **시 14:1-3** / **사 59:7-8** (인용 사슬), **레 16** / **히 9:5** (속죄소), **갈 2:16**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 정경 흐름 — 3장은 1-2장의 추궁을 "다 죄 아래"로 매듭짓고, 4장의 아브라함 예증으로 가는 다리를 놓는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한 사람이 빠른 문답을 따라가다 인용의 사슬에 휩쓸린다.
- **멈춤 1:** "모든 입을 막고"의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이제는"이 무대를 돌리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그의 피로 화목제물"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입이 막힌 바닥에서 거저 의롭다 하심이 온다\*는 결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모든 입이 막히는 자리\*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빠른 문답으로 유대인의 나음을 짚는다
- [x]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가 인용으로 쏟아진다
- [x] 모든 입이 막힌다
- [x]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다
- [x] 차별 없이 믿는 모든 자에게다
- [x] 그의 피로 화목제물이 선포된다
- [x] 끝은 율법을 굳게 세움이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 미해결 질문

로마서 3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20절)는 무엇을 말하는가?

- 율법이 의롭게 하지 못하고 깨닫게만 한다고 함.
- 율법의 자리는 답하지 않고 어구만 기록.

Q2. "이제는"(21절)의 시간은 무엇이 바뀐 자리인가?

- 어둠과 빛의 경첩으로 "이제는"이 놓임.
- 그 전환의 시점은 보류, 위치만 보존.

Q3. "화목제물"(25절)은 어떤 자리를 떠올리게 하는가?

- hilasterion이 시은좌·속죄소와 결을 같이함.
- 그 연결의 무게는 답하지 않고 배경만 기록.

Q4. "의로우심"과 "의롭다 하심"(26절)은 어떻게 한 문장인가?

- 하나님이 자기도 의로우시며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
- 두 결의 동거만 기록, 관계는 묵상으로 이월.

Q5. "값 없이"와 "속량"(24절)은 어떻게 한 절에 있는가?

- 거저 받음(dorean)과 값 치름(apolytrosis)이 한 절에.
- 두 결의 병치만 보존, 관계는 보류.

Q6.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28절)와 "율법을 세운다"(31절)는 어떻게 함께인가?

- 율법을 폐하지 않으면서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됨.
- 나란히 돛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로마서 4장

ROM-004 · 서신서 · 헬라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 자리에서, 그것이 할레 이전이었음이 못박히고, 믿음이 일  
이 아니라 약속을 향한다.

## 관찰된 사실

### 로마서 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회계실·법정 결 — "샀"(4), "빚"(4), "여기다"(셈하다). 후반은 약속·후사의 자리.
- 소품 = 할레(9-12), 후사(13-14), "죽은 몸·죽은 태"(19).
- 인물 소재 = 아브라함 + 다윗(6, 시 32 증언).
- logizomai(여기다)가 3·4·5·6·9·10·11·22·23·24절에 거듭.
- 3절은 창세기 15:6 인용(배경).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3장 토론 뒤 한 사람(아브라함)으로 좁혀져 차분함.
- "여겨졌다"가 반복되며 장부의 공기.
- 끝(17-21)에서 회계실이 창조의 자리로 넓어짐.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 — 한 사람 물음으로 열림.
- 25절: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 "우리"로 넓어지며 닫힘.
- 한 사람에서 우리로. 3절 창 15:6 인용이 기둥.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아브라함(주인공) / 다윗(증인, 6) / 사라(19) / "우리"(24).
- 상황 = 증명 — (1) 샀 아닌 은혜(4-5) (2) 할레 이전(9-12) (3) 율법 이전 약속(13-17).
- 사상 = "일이 아니라 믿음" — 4-5절 일/믿음 정확한 대비.
- 세 번의 "이전" — 일 이전·할레 이전·율법 이전.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8): 아브라함·다윗 — "의로 여겨짐", 샀 아닌 은혜.
- 컷 2 (9-12): 할레 이전 — "무할레시에", 믿음의 조상.
- 컷 3 (13-15): 율법 이전 — 약속은 믿음의 의로.
- 컷 4 (16-17): 은혜에 속한 약속 — "많은 민족의 조상",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 컷 5 (18-25): 바라고 믿음 — 죽은 몸·태, "우리도 의로 여기심".

#### 6 — (1) 원어 카드

- logizomai(λογίζομαι) — 여기다·셈하다·장부에 기입하다. 본장 11회.
- pistis(πίστις) — 믿음. 9·11·12·13·14·16·19·20절.
- charis(χάρις) — 은혜. 4·16절.
- misthos(μισθός) — 삿. 4절 "삿이 은혜가 아니라 빛으로".
- eperangelia(ἐπαγγελία) — 약속. 13·14·16·20절.
- peritome(περιτομή) — 할례. 9-12절, "이전" 논증.
- nekros(νεκρός) — 죽은. 17·19절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것 같은 몸".

#### 6 — (2) 문학 구조

- 예증(1-8) → 할례 이전(9-12) → 율법 이전(13-17) → 견고한 믿음(18-25)의 네 묶음.
- 창 15:6이 3·22·23절에 세 번 되짚어짐(수미·반복).
- 세 번의 "이전"(일/할례/율법)이 시간을 거슬러 오름.
- 17절 창조 언어("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가 19절 죽은 몸과 대구.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3절은 창세기 15:6 인용, 7-8절은 시편 32:1-2 인용(배경).
- logizomai는 헬라 회계·법정 용어 — "계산에 넣다"(배경으로만).
- 아브라함은 1세기 유대교에서 믿음·순종의 모범 인물 — 본문은 그를 "할례 이전"으로 다시 읽음(배경, 풀이는 보류).

#### 6 — (4) 교차 참조 노트

- 롬 4:3 ↔ 창 15:6 (믿음에 의로 여겨짐)
- 롬 4:7-8 ↔ 시 32:1-2 (허물의 사함을 받은 복)
- 롬 4:17 ↔ 창 17:5 (많은 민족의 조상)
- 롬 4:18 ↔ 창 15:5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 롬 4:25 ↔ 사 53:5-6 (우리 범죄를 위하여 내죽이 됨)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장이 한 사람을 불러 세운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 그리고 창세기의 한 구절을 편다 — "믿음에 의로 여겨졌다." 장부 어휘가 이어진다. 일한 자에게는 삿이 빛으로 여겨지지만, 일하지 않아도 믿는 자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다윗이 불러와 "허물의 사함을 받은 복"을 증언한다. 그다음 시간을 거슬러 오른다 — 그 여김은 무할례시였고, 할례는 그 의를 인친 표일 뿐이다. 약속도 율법 이전이라 은혜에 속하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회계실이 창조의 자리로 넓어진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앞에서, 백 세 된 죽은 몸과 죽은 태에도 믿음으로 견고해진 한 사람이 그려지고, "우리도 의로 여기심을 받을 자"라는 한 줄로 닫힌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믿음에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 할레 이전에"
- 초벌 부제: "한 사람의 장부에서, 우리 모두의 약속으로"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창 15:6·시 32 인용·회계 용어·문학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의로 여기심"(logizomai)이 전가 교리 체계로 굳지 않도록 → 회계 용어·창 15:6 위치만 기록.
- "샅이 아니라 은혜"가 행위 대 은혜 도식으로 단정되지 않도록 → 4-5절 어휘 대비만 보존.
- 17·19절 "죽은 자를 살리심"을 부활 교리로 확대하지 않고 창조 언어·죽은 몸의 대구로만 기록.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짐"을 장부처럼 펴서, 그것이 일·할레·율법 그 모든 것 "이전"의 믿음이었음을 거슬러 올라가며 증명하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한 사람을 불러 세워 창세기 15:6을 편다 — "믿음에 의로 여겨졌다." 일한 자에게는 샅이 빛으로, 믿는 자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는 회계 어휘가 이어지고, 다윗이 "사함받은 복"을 증언한다. 그다음 시간을 거슬러, 그 여김이 할레 이전이었고 약속이 율법 이전이었음을 짚는다. 마지막엔 회계실이 창조의 자리로 넓어져, 죽은 몸·죽은 태 앞에서도 견고해진 믿음이 그려지고 "우리도"로 닫힌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회계실·법정 결 — 샷·빛·여김. 소품 = 할례·후사·죽은 몸. logizomai 11회. 창 15:6 인용(3).
2 첫 느낌·분위기	한 사람으로 좁혀져 차분. "여겨졌다" 반복. 끝에서 창조의 자리로 넓어짐.
3 시작과 끝	시작 — 아브라함의 물음(1). 끝 — "우리"(25). 한 사람에서 우리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아브라함 / 다윗 / 사라 / 우리. 사상 = "일이 아니라 믿음". 세 번의 "이전".
5 장면 컷	컷 1 예증(1-8). 컷 2 할례 이전(9-12). 컷 3 율법 이전(13-15). 컷 4 약속(16-17). 컷 5 견고한 믿음(18-25).
6 의문·발견·정보	창 15:6 세 번 되짚음. 다윗 삽입(6-8). 11절 직접 설명. 창조 언어와 죽은 몸.
7 동영상	한 사람의 장부 → 다윗 증언 → 세 번의 "이전" → 창조의 약속 → "우리"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믿음에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 할례 이전에". 부제 — "한 사람의 장부에서, 우리 모두의 약속으로".
9 동영상 안 겹기·기도	장부 앞에 서서 일한 샷을 세던 자리를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장부의 동사:** "여기다"(logizomai)가 열한 번 반복된다. 본문은 의를 회계의 기입으로 그린다.
2. **결 2 — 거슬러 오르는 "이전":** 일 이전, 할례 이전, 율법 이전. 본문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믿음을 모 든 표지 앞에 둔다.
3. **결 3 — 죽음 앞의 견고:** 백 세 된 죽은 몸과 죽은 태 앞에서 도리어 견고해진다(19-20절). 창조의 언어가 약속을 받친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롬 3:28**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롬 4:25** (사 53과의 결), **롬 9:7-8** (약속의 자녀).
- 다른 권 — **창 15:6** (3:22·23절 인용), **시 32:1-2** (7-8절 인용), **창 17:5** (많은 민족의 조상).
- 정경 흐름 — 4장은 3장의 "믿음으로"를 옛 인물로 입증해, 5장의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로 가는 다리를 놓는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옛 장부 앞에 선다.
- **멈춤 1:** "샷이 아니라 은혜로 여겨진다"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할례 이전이었다"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죽은 몸 앞에서 견고해졌다"는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옛 한 사람의 여김이 우리에게로 온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일한 샷을 세던 장부 앞\*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아브라함이 믿으매 의로 여겨진다
- [x] 일한 자에게는 샅이 빛으로 여겨진다
- [x] 다윗이 사함받은 복을 증언한다
- [x] 그 여김은 할례 이전이다
- [x] 약속은 율법 이전이다
- [x] 죽은 몸 앞에서 믿음이 견고해진다
- [x] 끝은 "우리도 의로 여기심을 받을 자"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의로 여겨진 믿음.

## 미해결 질문

로마서 4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ק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의로 여기다"(logizomai)는 장부의 무엇인가?

- 회계 용어로 한 장에 열한 번 반복.
- 여김의 무게는 답하지 않고 어휘 분포만 기록.

Q2. 왜 다윗(6-8절)이 아브라함 한가운데 끼어드는가?

- 시편 32편의 "사함받은 복"이 증언처럼 들어옴.
- 그 삽입의 까닭은 본문이 직접 말하지 않음. 위치만 보존.

Q3. 왜 "할례 이전"(10절)이 그토록 강조되는가?

- 믿음의 의가 무할례시에 여겨졌음을 거듭 짚음.
- "이전"의 무게는 11절 외엔 보류, 어구만 기록.

Q4.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17절)는 어떤 자리인가?

- 창조의 언어가 약속 한가운데 놓임.
- 창조와 약속의 연결은 답하지 않고 어구만 보존.

Q5. "죽은 몸"(19절)과 견고한 믿음(20절)은 어떻게 함께인가?

- 죽은 것 같은 몸·태 앞에서 도리어 견고해짐.
- 죽음과 견고의 병치만 기록, 관계는 보류.

Q6. "우리도"(24절)는 아브라함과 어떻게 이어지는가?

- 옛 한 사람의 여김이 "우리"에게로 적용됨.
- 이어짐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로마서 5장

ROM-005 · 서신서 · 헬라어

믿음으로 화평을 누리다는 데서 시작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가 못이 되고,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그리스도의 대조로 펼쳐진다.

## 관찰된 사실

### 로마서 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둘 — 화평을 누리는 마음의 자리(1-11), 아담·그리스도를 맞세우는 논증의 자리(12-21).
- 소품 = "그 피"(9절), "화목"(11절), "환난"(3절).
- 3-4절의 사슬 — 환난·인내·연단·소망이 줄지어 놓임.
- 법정 어휘 "의롭다 하심"(dikaioo, 1·9절)이 배경에 깔림.
- 7절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사람의 사랑과 견주는 배경.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1-11절 환함·안도("화평을 누리자"), 12-21절 무거운 논증("죄·사망"). 톤의 전환.
- 8절이 못처럼 박힘 —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 "더욱"이 반복(9·10·15·17·20)되어 디딤돌처럼 들림.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화평을 누리자" — 화평으로 열림.
- 21절: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 영생으로 닫힘.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1·21절)가 양 끝을 감쌌(수미).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바울·"우리"(1-11) / "한 사람 아담"·"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12-21).
- 상황 = 누림(1-11)과 비교(12-21).
- 사상 = "더욱"(9·10·15·17·20) — 범죄보다 은혜가 더욱 넘침.
- 대구 = "범죄"(paraptoma) ↔ "은사·선물"(charisma), 15-16절.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5): 누림 — 화평·은혜·소망·부은 사랑.
- 컷 2 (6-11): "아직 죄인 되었을 때" — 죽으심·화목.
- 컷 3 (12-17): 한 사람으로 죄가, 한 사람으로 은혜가.
- 컷 4 (18-21): 한 범죄와 한 의, 율법이 들어온 까닭.

## 6 – (1) 원어 카드

- eirene(εἰρήνη) – 화평. 1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 dikaios(δικαιόω) – 의롭다 하다. 1·9절.
- charis(χάρις) – 은혜. 2·15·17·20·21절.
- thlipsis(θλίψις) – 환난·눌림. 3절.
- hypomone(ὑπομονή) – 인내·아래 머뭇. 3·4절.
- katallasso(καταλλάσσω) – 화목·관계를 바꿈. 10·11절.
- paraptoma(παράπτωμα) – 범죄·실족. 15·17·18절.
- charisma(χάρισμα) – 은사·선물. 15·16절.

## 6 – (2) 문학 구조

- 누림(1-11) → 비교(12-21)의 두 묶음.
- "더욱"(pollo mallon) 후렴 5회(9·10·15·17·20).
- "한 사람" ↔ "한 사람"의 대구(12·15·17·18·19).
- 12절의 긴 삽입 – "그러므로"가 13-17절로 풀렸다 18절에서 이어짐.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1-11절 "의롭다 하심"은 4장 아브라함 논증을 받아 이어지는 결론부(배경).
- 12-21절 "한 사람 아담"은 창 3장 사건을 전제로 한 비교(배경으로만).
-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 시대(모세)를 가리키는 어구(배경).

## 6 – (4) 교차 참조 노트

- 롬 5:1 ↔ 롬 3:28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 롬 5:12 ↔ 창 3:6,19 (한 사람으로 죄와 사망)
- 롬 5:14 ↔ 고전 15:22,45 (아담과 그리스도)
- 롬 5:5 ↔ 롬 8:15-16 (성령으로 부은 사랑)
- 롬 5:9 ↔ 롬 8:1 (정죄에서 의로)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한 사람이 "이제 우리가 화평을 누리다"고 고백하며 글을 연다. 은혜에 서 있고, 환난조차 인내·연단·소망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사랑이 마음에 쏟아졌다고 한다. 그리고 시점을 못 박는다 –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톤이 비교로 바뀌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와 사망이 왕 노릇 했다"고 아담을 세우고, 맞은편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세운다. 한 범죄와 한 의가 나란히 놓이되 늘 은혜가 "더욱 넘친다." 율법이 들어와 범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고,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한 줄로 닫힌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에게"
- 초벌 부제: "누리는 화평에서, 더욱 넘치는 은혜까지"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아담 비교·율법 어구·문학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4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한 사람 아담"이 원죄 교리 설명으로 굳지 않도록 → paraptoma 위치만 기록.
- "더욱 넘쳤나니"가 은혜론 강론으로 번지지 않도록 → 비교 어휘 분포로만 보존.
-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을 율법 무용론으로 확대하지 않고 어구 위치만 기록.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로마서 5장은 믿음으로 누리는 화평을 고백한 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를 못으로 박고,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그리스도를 맞세워 "더욱 넘치는 은혜"로 닫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이제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는 고백으로 열린다. 은혜에 서 있고, 환난조차 인내·연단·소망으로 이어지며, 사랑이 마음에 쏟아졌다고 한다. 그리고 시점을 못 박는다 —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8절). 톤이 비교로 바뀌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와 사망이 왕 노릇 했다"고 아담을 세우고, 맞은편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세운다. 한 범죄와 한 의가 나란히 놓이되 늘 은혜가 "더욱 넘친다." 율법이 들어와 범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고,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환한 한 줄로 닫힌다. 누림과 비교가 한 장 안에 나란히 놓인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두 무대 — 누림(1-11)·비교(12-21). 소품 = 피(9)·화목(11)·환난(3). dikaio가 배경.
2 첫 느낌·분위기	1-11 환함, 12-21 무거운 논증. 8절이 못처럼 박힘. "더욱"이 반복.
3 시작과 끝	시작 — 화평(1). 끝 — 영생(21). "주로 말미암아"가 양 끝을 감쌌.
4 등장인물·상황·사상	바울·"우리" / 아담·그리스도. 사상 = "더욱". 대구 = paraptoma ↔ charisma.
5 장면 컷	컷 1 누림(1-5). 컷 2 아직 죄인(6-11). 컷 3 한 사람으로(12-17). 컷 4 한 의·율법(18-21).
6 의문·발견·정보	3-4 사술. "아직"의 시점. 12절 삽입. 20절 율법. ekcheo 부은 사랑.
7 동영상	화평의 고백 → 아직 죄인 → 아담의 세움 → 그리스도의 세움 → 더욱 넘침 → 영생으로 흐름.
8 초별 제목·부제	제목 —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에게". 부제 — "누리는 화평에서, 더욱 넘치는 은혜까지".
9 동영상 안 겉기·기도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시점에 서서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시점을 못 박는 "아직"**: "아직 죄인 되었을 때"(8절)가 죽으심의 때를 한 단어로 못 박는다. 무게는 시점에 있다.
2. **결 2 — 맞세워진 두 사람**: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그리스도가 거듭 맞세워진다(12·15·17·19절). 그러나 늘 "더욱"이 한쪽으로 기운다.
3. **결 3 — 같은 동사의 왕 노릇**: "사망이 왕 노릇"(17절)과 "은혜가 왕 노릇"(21절)이 같은 basileuo로 대비된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롬 3:28**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롬 8:1** (정죄함이 없음), **롬 8:15-16** (성령으로 부은 사랑).
- 다른 권 — **창 3:6,19** (한 사람으로 죄와 사망), **고전 15:22,45** (아담과 그리스도).
- 정경 흐름 — 5장의 화평은 1-4장 논증의 결론이며, 6-8장이 그 화평의 삶을 풀어 간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한 사람이 "이제 화평을 누린다"는 고백 앞에 선다.
- **멈춤 1**: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시점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한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의 맞세움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더욱 넘쳤나니"가 거듭되는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화평의 고백과 은혜의 비교가 한 장에 있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시점 앞\*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의롭다 하심을 받아 화평을 누린다
- [x] 환난이 인내·연단·소망으로 이어진다
- [x]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 [x] 한 사람으로 죄가, 한 사람으로 은혜가 들어온다
- [x] 늘 은혜가 "더욱" 넘친다
- [x] 율법이 들어온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 [x] 끝은 영생에 이르는 은혜의 왕 노릇이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더욱 넘치는 은혜.

## 미해결 질문

로마서 5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아직 죄인 되었을 때"(8절)인가?

- "아직"이 시점을 못 박음 — 죽으심의 때가 강조됨.
- 그 시점 강조의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위치만 보존.

Q2. 환난·인내·연단·소망의 사슬(3-4)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 화평을 누리는 자리에 환난이 끼어듦.
- 누림과 환난이 나란한 까닭은 보류.

Q3. "한 사람"의 비교(12-19)는 대칭인가 비대칭인가?

- 아담과 그리스도가 "한 사람" 대 "한 사람"으로 맞세워짐.
- 그러나 늘 "더욱"이 붙음 — 대칭이 깨짐. 균형의 어긋남만 기록.

Q4. 12절의 긴 삽입은 왜 문장을 끊는가?

- "그러므로"(12)가 13-17절로 풀렸다 18절에서 이어짐.
- 삽입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구조만 기록.

Q5. "율법이 들어온 것"(20)은 왜 이 비교에 끼어드는가?

-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는 어구가 갑작스러움.
- 율법의 자리는 묵상으로 이월, 위치만 보존.

Q6. "사망이 왕 노릇"과 "은혜가 왕 노릇"(17·21)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 같은 "왕 노릇"(basileuo)이 사망과 은혜에 모두 쓰임.
- 같은 동사의 대비만 기록, 관계는 보류.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로마서 6장

ROM-006 · 서신서 · 헬라어

"죄에 거하겠느냐"는 반문에서 시작해, 죄에 죽고 함께 산다는 세례의 연합이 못이 되고, "죄의 값은 사망"의 대조로 닫힌다.

## 관찰된 사실

### 로마서 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둘 — 세례·무덤·부활(1-14), 주인과 종의 노예 시장(15-23).
- 소품 = "세례"(3-4절), "옛 사람"(6절), "지체"(13·19절).
- 짝 소재 — 죄/의, 죽음/생명, 옛 사람/새 생명, 종/자유.
- "함께"(syn-) 접두어가 4·5·6·8절에 박힘.
- 19절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는 눈높이를 낮춘 배경.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1절이 질문, 2절이 "그럴 수 없느니라"로 단호히 끊음.
- "장사되었나니"(4절) 무덤 이미지 뒤 "새 생명"으로 환해짐.
- "종"(16-22)이 후렴처럼 반복됨.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죄에 거하겠느냐" — 질문으로 열림.
- 23절: "죄의 값은 사망이요... 영생이니라" — 대구로 닫힘.
- 11절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라"가 가운데 축으로 박힘.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바울 / "너희" / 두 주인 — "죄"와 "의(하나님)".
- 상황 = 사실 진술(1-10) → 명령("여길지어다"11, "드리라"13).
- 사상 = 종 됨의 바뀔(17-18) —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 대구 = 자유(eleutheroo)와 거룩(hagiasmos)이 결산에 함께(18·22절).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4): 반문·세례로 함께 장사됨.
- 컷 2 (5-11): 함께 죽고 함께 삶, "여길지어다".
- 컷 3 (12-14):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 컷 4 (15-23): 두 주인·결산, "죄의 값은 사망".

## 6 – (1) 원어 카드

- baptizo(βαπτίζω) – 세례·잠그다. 3절.
- synthapto(συνθάπτω) – 함께 장사되다. 4절.
- palaios(παλαιός) – 옛. "옛 사람"(6절).
- doulos(δοῦλος) – 종·노예. 16-20절.
- eleutheroo(ἐλευθερώω) – 자유롭게 하다. 18·22절.
- hagasmos(ἁγιασμός) – 거룩함. 19·22절.
- opsonion(ὀψώνιον) – 샅·급료. 23절.
- charisma(χάρισμα) – 은사·선물. 23절.

## 6 – (2) 문학 구조

- 세례·부활(1-14) → 두 주인(15-23)의 두 묶음.
- 같은 꼴의 반문 2회 – 1절·15절이 단을 엮.
- "함께"(syn-) 접두어 후렴 4회(4·5·6·8).
- 23절의 대구 – "샅(opsonion)" ↔ "은사(charisma)".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샅"(opsonion, 23절)은 로마 군인의 급료를 가리키던 일상어(배경).
- "종"(doulos)은 1세기 노예 제도를 전제한 비유 무대(배경으로만).
- 14절 "법 아래/은혜 아래"는 5:20의 율법 어구를 이어받음(배경).

## 6 – (4) 교차 참조 노트

- 롬 6:1 ↔ 롬 5:20 (은혜가 더한 곳에)
- 롬 6:4 ↔ 골 2:12 (세례로 함께 장사됨)
- 롬 6:11 ↔ 갈 2:20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 롬 6:23 ↔ 롬 5:15 (은사·선물)
- 롬 6:18 ↔ 요 8:34-36 (죄의 종과 자유)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한 사람이 곤장 질문을 던진다.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리고 단호히 끊는다 – "그럴 수 없다." 그가 무덤을 그린다. "세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러나 무덤에서 끝나지 않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한다. 한 줄을 박는다 –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기라." 장면이 노예 시장으로 옮겨가, "누구에게 종으로 드리면 그 종이 된다"는 원리를 세우고,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결산이 울린다 – "죄의 샅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 이니라." 급료와 선물이 한 줄로 맞세워지며 닫힌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 죄의 샅은 사망"
- 초벌 부제: "죄에 죽는 자리에서, 두 주인의 결산까지"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군인 급료·노예 제도·문학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4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함께 장사되었나니"가 세례 신학 강론으로 굳지 않도록 → synthapto 위치만 기록.
- "종 됨의 바뀔"이 성화론 설명으로 번지지 않도록 → 어휘 분포로만 보존.
- 23절 대구를 구원론 단정으로 확대하지 않고 opsonion/charisma 대비만 기록.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로마서 6장은 "죄에 거하겠느냐"는 단호한 반문으로 열어, 죄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연합을 못으로 박고, "죄의 값은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는 대구로 닫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곧장 질문을 던진다.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리고 단호히 끊는다 — "그럴 수 없다." 무덤을 그린다 — "세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러나 무덤에서 끝나지 않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한다. 한 줄을 박는다 —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기라"(11절). 장면이 노예 시장으로 옮겨가, "누구에게 종으로 드리면 그 종이 된다"는 원리를 세우고,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한다. 마지막에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23절)는 대구로 닫힌다. 죽음과 삶, 두 주인이 한 장 안에 나란히 놓인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두 무대 — 세레·무덤(1-14)·노예 시장(15-23). 소품 = 세레·옛 사람·지체. "함께"(syn-) 박힘.
2 첫 느낌·분위기	1절 질문, 2절 단호한 끊음. 무덤 뒤 새 생명. "종"이 후렴.
3 시작과 끝	시작 — 반문(1). 끝 — 샷과 은사의 대구(23). 11절이 가운데 축.
4 등장인물·상황·사상	바울·"너희"·두 주인. 사실→명령. 사상 = 종 됨의 바뀜(17-18).
5 장면 컷	컷 1 반문·세레(1-4). 컷 2 함께 죽고 삶(5-11). 컷 3 드리라(12-14). 컷 4 두 주인(15-23).
6 의문·발견·정보	반문 2회(1·15). "여길지어다"의 명령. syn- 후렴. opsonion/charisma 대구.
7 동영상	반문 → 무덤 → 새 생명 → 여기라 → 노예 시장 → 결산으로 흐름.
8 초별 제목·부제	제목 —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 죄의 샷은 사망". 부제 — "죄에 죽는 자리에서, 두 주인의 결산 까지".
9 동영상 안 걸기·기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자리에 서서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걸

1. **결 1 — 단호한 반문:** "그럴 수 없느니라"(2절)가 질문을 곧바로 끊는다. 단의 첫걸음이 부정으로 박힌다.
2. **결 2 — "함께"의 후렴:** syn-(함께) 접두어가 장사·연합·못박힘·삶에 거듭 붙는다(4·5·6·8절). 연합이 한 접두어로 묶인다.
3. **결 3 — 샷과 선물의 대구:** "샷"(opsonion)과 "은사"(charisma)가 한 줄에 맞세워진다(23절). 급료와 거저 줌이 끝에서 갈린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롬 5:20** (은혜가 더한 곳에), **롬 5:15** (은사·선물), **롬 8:1** (정죄함이 없음).
- 다른 권 — **골 2:12** (세례로 함께 장사됨), **갈 2:20**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 정경 흐름 — 6장의 "함께 죽고 삶"은 5장 화평의 결과이며, 7-8장이 그 삶의 싸움과 자유를 풀어 간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한 사람이 "죄에 거하겠느냐"는 반문 앞에 선다.
- **멈춤 1:** "함께 장사되었나니"라는 무덤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죄에 죽고 하나님께 살라"는 명령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두 주인" 사이에 선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죽음과 삶, 두 주인이 한 장에 있다\*는 결을 손에 진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자리 앞\*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걸:

- [x] "죄에 거하겠느냐"는 반문이 단호히 끊긴다

- [x] 세례로 그와 함께 장사된다
- [x]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다
- [x] "죄에 죽고 하나님께 살라"가 명령으로 박힌다
- [x] 사람은 죄의 종이거나 의의 종이다
- [x] 종 됨이 바뀐다
- [x] 끝은 삶과 은사의 대구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죄에 죽고 하나님께 살아.

## 미해결 질문

로마서 6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ק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같은 반문(1·15)을 두 번 던지는가?**

- "죄에 거하겠느냐"(1)와 "죄를 지으리요"(15)가 같은 꼴로 단을 엮.
- 두 번 반복의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위치만 보존.

**Q2. "여길지어다"(11)는 사실인가 명령인가?**

- 1-10절의 사실 진술이 11절에서 명령 동사로 바뀜.
- 사실과 명령의 경계는 보류.

**Q3. "함께"(syn-) 접두어는 왜 반복되는가?**

- 함께·장사·연합·못박힘·삶(4·5·6·8)이 후렴처럼 박힘.
- 연합의 정도는 답하지 않고 어휘 분포만 기록.

**Q4. 14절 "법 아래/은혜 아래"는 왜 여기 끼어드는가?**

- 세례 논의 한가운데 율법 어구가 들어옴.
- 율법의 자리는 묵상으로 이월, 어구만 보존.

**Q5. "열매"(karpos, 21-22)가 두 결과에 같이 쓰인 까닭은?**

- 죄의 열매와 거룩함의 열매가 같은 단어로 대비됨.
- 같은 단어의 양면만 기록, 관계는 보류.

**Q6. "삶"과 "은사"(23)의 대구는 무엇을 드러내는가?**

- opsonion(급료)과 charisma(선물)가 한 줄에 맞세워짐.
- 두 단어의 차이만 기록, 의미는 보류.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로마서 7장

ROM-007 · 서신서 · 헬라어

남편 비유로 율법에서 놓임을 그린 데서 시작해, 율법은 거룩하나 죄가 틈탄다는 분석이 못이 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의 탄식으로 내려간다.

## 관찰된 사실

### 로마서 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셋 — 결혼 비유(1-6), 율법·죄 해부(7-13), 내면 독백(14-25).
- 소품 = "남편"(2-3절), "탐내지 말라" 계명(7절).
- 짝 소재 — 율법/죄, 속사람/지체, 마음의 법/죄의 법.
- nomos(율법)가 한 장에 거둬, 메아리처럼 울림.
-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 옛 기억이 배경.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1-6절 법조문처럼 차분, 14절부터 격해짐("원하는 바를 행하지 아니하고").
- 24절 "곤고한 사람"에서 탄식이 터짐.
- "나"라는 일인칭이 14절부터 폭발.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 — 객관적 진술로 열림.
- 25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 분열로 닫힘.
- 24절 "곤고한 사람"이 가운데 골짜기로 박힘.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바울("나", 14절~) / "죄"가 인격처럼 움직임("기회를 타서").
- 상황 = 갈등(19절) — 원하는 선과 행하는 악의 어긋남.
- 사상 = "두 법"(22-23) —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의 싸움.
- 대구 = "육신"(sarx) ↔ "속사람"(eso anthropos), 18·22절.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6): 결혼 비유 — 매임과 놓임.
- 컷 2 (7-12): 율법은 거룩하나 죄가 계명으로 틈탐.
- 컷 3 (13-20): 원하는 선 못 함, 원치 않는 악 행함.
- 컷 4 (21-25): 두 법의 싸움, "곤고한 사람".

## 6 – (1) 원어 카드

- nomos(νόμος) – 율법·법. 장 전체에 거둬.
- hamartia(ἁμαρτία) – 죄. 7-25절, 인격처럼 묘사.
- entole(ἐντολή) – 계명. 7-13절.
- epithymia(ἐπιθυμία) – 탐심·욕망. 7-8절.
- sarx(σάρξ) – 육신. 14·18·25절.
- eso anthropos(ὁ ἔσω ἄνθρωπος) – 속사람. 22절.
- talaiporos(ταλαίπωρος) – 곤고한·비참한. 24절.
- rhyomai(ῥύομαι) – 건져내다·구원하다. 24절.

## 6 – (2) 문학 구조

- 비유(1-6) → 해부(7-13) → 독백(14-25)의 세 묶음.
- 같은 꼴의 반문 2회 – "그럴 수 없느니라"(7·13).
- "원하는 바를 행하지 아니하고" 후렴(15·19).
- 시제 전환 – 과거형(7-13) → 현재형(14-25).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7절 "탐내지 말라"는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출 20:17 / 신 5:21) 인용(배경).
- 1-3절 결혼 법은 1세기 유대 혼인 관습을 전제한 비유 무대(배경으로만).
- "육신"(sarx)과 "속사람"(eso anthropos)은 6장의 옛 사람 논의를 이어받음(배경).

## 6 – (4) 교차 참조 노트

- 롬 7:7 ↔ 출 20:17 / 신 5:21 (탐내지 말라)
- 롬 7:6 ↔ 롬 6:14 (법 아래가 아니라)
- 롬 7:24 ↔ 롬 8:2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 롬 7:18 ↔ 갈 5:17 (육체와 성령의 싸움)
- 롬 7:1 ↔ 롬 6:7 (죽으면 놓임)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한 사람이 법조문처럼 차분히 연다.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한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그 법에서 놓인다." 그리고 묻는다 –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율법으로 죄를 알았고, 죄가 계명을 틈타 일어났다고 한다. 톤이 갑자기 일인칭 독백으로 바뀐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같은 탄식이 거둬지고, 한 사람 안에서 두 법이 싸운다. 마침내 탄식이 터진다 –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곧이어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가 솟고, 다시 두 법으로 갈린 채 닫힌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 한 사람 안의 두 법"
- 초벌 부제: "거룩한 율법 앞에서, 곤고한 사람의 탄식까지"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십계명 인용·혼인 관습·시제 전환)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4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곤고한 사람"이 신자/불신자 논쟁으로 굳지 않도록 → talaiporos 위치만 기록.
- "두 법"이 율법 무용론으로 번지지 않도록 → nomos 갈라짐의 어휘 분포로만 보존.
-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함"을 인간론 단정으로 확대하지 않고 후렴 위치만 기록.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로마서 7장은 결혼 비유로 율법에서 놓임을 그린 뒤, 율법은 거룩하나 죄가 계명을 틈탄다는 해부를 못으로 박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의 탄식으로 내려가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법조문처럼 차분히 연다.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한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그 법에서 놓인다." 그리고 묻는다 —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율법으로 죄를 알았고, 죄가 계명을 틈타 일 어났다고 한다. 톤이 갑자기 일인칭 독백으로 바뀐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도다"(19절). 같은 탄식이 거듭되고, 한 사람 안에서 두 법이 싸운다 — 속사람의 하나님의 법과 지체의 죄의 법. 마침내 탄식이 터진다 —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24절). 곧이어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가 솟고, 다시 두 법으로 갈린 채 달린다. 거룩한 율법과 곤고한 나가 한 장 안에 나란히 놓인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세 무대 — 결혼 비유(1-6)·율법 해부(7-13)·내면 독백(14-25). nomos가 메아리.
2 첫 느낌·분위기	차분한 법조문 뒤 터지는 탄식. 24절 골짜기. 일인칭 폭발.
3 시작과 끝	시작 — 율법의 주관(1). 끝 — 두 법의 분열(25). 24절이 가운데 골짜기.
4 등장인물·상황·사상	"나" / 인격처럼 움직이는 "죄". 갈등(19). 사상 = 두 법(22-23).
5 장면 컷	컷 1 결혼 비유(1-6). 컷 2 율법·죄(7-12). 컷 3 어긋난 의지(13-20). 컷 4 두 법·곤고(21-25).
6 의문·발견·정보	반문 2회(7·13). "원하는 바" 후렴. 시제 전환. oikeyo 거함의 대비.
7 동영상	비유 → 율법이 죄냐 → 죄가 틈탐 → 어긋난 의지 → 두 법의 싸움 → 곤고한 탄식으로 흐름.
8 초별 제목·부제	제목 —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 한 사람 안의 두 법". 부제 — "거룩한 율법 앞에서, 곤고한 사람의 탄식까지".
9 동영상 안 겹기·기도	"누가 나를 건져내랴"는 물음 앞에 서서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율법을 변호하는 부정:**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7절). 율법을 죄와 떼어 놓는 부정이 단을 연다.
2. **결 2 — 어긋난 의지의 후렴:**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15·19절)가 거듭된다. 의지와 행동의 어긋남이 후렴으로 박힌다.
3. **결 3 — 탄식과 감사의 인접:** "곤고한 사람이로다"(24절) 바로 뒤에 "감사하리로다"(25절)가 붙는다. 골짜기와 솟음이 한 호흡에 놓인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롬 6:14** (법 아래가 아니라), **롬 8:2**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롬 6:7** (죽으면 놓임).
- 다른 권 — **출 20:17** / **신 5:21** (탐내지 말라), **갈 5:17** (육체와 성령의 싸움).
- 정경 흐름 — 7장의 탄식 "누가 나를 건져내랴"는 8장 "정죄함이 없나니"가 곧바로 받아 풀어 간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한 사람이 결혼 비유의 차분한 법조문 앞에 선다.
- **멈춤 1:** "율법이 죄냐"는 부정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한다"는 어긋남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두 법" 사이에 사로잡힌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거룩한 율법과 곤고한 나가 한 장에 있다\*는 결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누가 나를 건져내랴는 물음 앞\*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한다
- [x] 율법은 죄가 아니라 죄를 드러낸다
- [x] 죄가 계명을 틈타 일어난다
- [x] 원하는 선은 못 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 [x] 한 사람 안에서 두 법이 싸운다
- [x] "곤고한 사람으로다"는 탄식이 터진다
- [x] 탄식 뒤에 감사가 솟는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누가 나를 건져내랴.

## 미해결 질문

로마서 7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나"(14-25)는 누구의 자리인가?

- 일인칭이 14절부터 전면에서 나옴 — 보편의 나인지 특정 시점의 나인지.
- 화자의 자리는 본문이 못 박지 않음. 위치만 보존.

Q2. 시제 전환(과거→현재)은 무엇을 가르는가?

- 7-13절 과거형, 14-25절 현재형으로 넘어감.
- 시제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구조만 기록.

Q3. 왜 "그럴 수 없느니라"(7·13)가 두 번인가?

- 율법이 죄냐, 선한 것이 사망이 되었느냐 — 두 부정으로 단을 엮.
- 두 번 반복의 까닭은 보류.

Q4. "죄가 거하고... 선이 거하지 않는다"(17-18)는 어떻게 한 몸에 있는가?

- 같은 "거하다"(oikeo)가 죄와 선에 번갈아 쓰임.
- 한 사람 안의 두 거주만 기록, 관계는 보류.

Q5. 25절의 감사와 다시 오는 분열은 어떤 순서인가?

- "하나님께 감사" 뒤에 "죄의 법을 섬기노라"가 다시 옴.
- 감사 뒤 분열의 순서는 묵상으로 이월.

Q6. "누가 나를 건져내랴"(24)는 물음인가 부르짖음인가?

- rhyomai("건져내다")가 외침처럼 터짐.
- 물음과 부르짖음의 경계만 기록, 답은 보류.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로마서 8장

ROM-008 · 서신서 · 헬라어

"정죄함이 없나니"의 선언에서 시작해, 성령과 양자됨이 못이 되고, "협력하여 선을"을 지나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의 승리로 솟는다.

## 관찰된 사실

### 로마서 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셋 — 성령·육신을 가림(1-17), 함께 탄식하는 자리(18-30), 승리의 법정(31-39).
- 소품 = "양자의 영"(15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23절).
- 긴 나열 — 환난·곤고·박해·기근·적신·위험·칼(35절); 사망·생명·천사·권세...(38-39절).
- pneuma(성령)가 1-16절에 거듭, 메아리처럼 울림.
- 26절 "말할 수 없는 탄식" — 침묵의 간구가 배경.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1절 "정죄함이 없나니"로 환하게 열림. 앞 장 탄식 뒤라 더 환함.
- "아빠 아버지"(15절)의 친밀함.
- 31절부터 수사적 질문이 쏟아지며 점점 솟음.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정죄함이 없나니" — 부정의 선언으로 열림.
- 39절: "끊을 수 없으리라" — 부정의 선언으로 닫힘.
- 두 부정("없나니"·"끊을 수 없으리라")이 양 끝을 감쌌(수미).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바울·"우리" / "성령"(인물처럼 증언·간구) / "피조물"(탄식).
- 상황 = 탄식과 소망(22-23) — 탄식이 고대로 그려짐.
- 사상 = "위하여"(31·32·34) —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
- 사슬 = 미리 아심·정하심·부르심·의롭다 하심·영화롭게 하심(29-30, proorizo).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11): 성령의 법 — 정죄 없음, 육신·영의 대조.
- 컷 2 (12-17): 양자의 영 — "아빠 아버지", 후사.
- 컷 3 (18-27): 탄식과 고대 — 피조물·우리·성령.
- 컷 4 (28-30): "협력하여 선을", 다섯 동사의 사슬.

- 컷 5 (31-39): 송영 — "누가 끊으리요", 줄지은 목록.

## 6 — (1) 원어 카드

- katakrima(κατάκριμα) — 정죄. 1절 "정죄함이 없나니".
- pneuma(πνεῦμα) — 영·성령. 1-16절 거듭.
- huiiothesia(υιοθεσία) — 양자됨. 15·23절.
- abba(ἄββᾶ) — 아빠(아람어). 15절.
- stenazo(στενάζω) — 탄식하다. 22·23절.
- proorizo(προορίζω) — 미리 정하다. 29·30절.
- hypernikaο(ὑπερνικάω) — 넉넉히 이기다. 37절.
- chorizo(χωρίζω) — 끊다·갈라놓다. 35·39절.

## 6 — (2) 문학 구조

- 성령의 삶(1-17) → 탄식·소망(18-30) → 송영(31-39)의 세 묶음.
- "탄식"(stenazo) 3회 — 피조물·우리·성령(22·23·26).
- 다섯 동사의 사슬(29-30) — 같은 어미로 줄지음.
- "누가"(tis) 후렴 — 31·33·34·35절 수사적 질문.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15절 "아빠"(abba)는 아람어 친밀 호칭, 헬라어 "아버지"와 나란히 둠(배경).
- 1절 "정죄함이 없나니"는 7:24 "곤고한 사람" 탄식을 곧바로 받음(배경).
- 35·38-39절의 목록은 당시 고난 목록(peristasis) 양식과 닮음(배경으로만).

## 6 — (4) 교차 참조 노트

- 롬 8:1 ↔ 롬 7:24 (곤고한 사람 → 정죄 없음)
- 롬 8:15 ↔ 갈 4:6 (아빠 아버지)
- 롬 8:28 ↔ 롬 8:18 (현재 고난과 장래 영광)
- 롬 8:34 ↔ 롬 8:1 (정죄하리요 → 정죄 없음)
- 롬 8:39 ↔ 롬 5:5 (하나님의 사랑)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한 사람이 앞 장의 탄식 뒤에 환한 선언을 던진다. "이제 정죄함이 없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 육신을 따르는 삶을 가르치고, 친밀한 호칭을 부른다 — "아빠 아버지." 우리가 자녀요 후사라고 한다. 톤이 탄식으로 내려가, 피조물이 탄식하고 우리가 탄식하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다. 그러나 그 탄식이 "고대함"으로 그려진다. 한 줄이 박힌다 —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다섯 동사가 사슬처럼 이어진다. 마지막에 질문이 쏟아진다 —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누가 정죄하랴? 누가 끊으랴?" 환난도 칼도, 사망도 생명도 "끊을 수 없다"는 송영으로 닫힌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이제 정죄함이 없나니 —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 초벌 부제: "정죄 없음의 선언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까지"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아람어 아빠·고난 목록·동사 사슬)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미리 정하시교"(29-30)가 예정 교리 논쟁으로 굳지 않도록 → proorizo 사슬 위치만 기록.
- "협력하여 선을"이 적용 설교로 번지지 않도록 → 28절 어구 위치만 보존.
- "누가 끊으리요"를 확신 교리로 단정하지 않고 수사적 질문 분포로만 기록.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로마서 8장은 "정죄함이 없나니"의 선언으로 열어, 성령과 양자됨과 탄식 속 고대를 지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의 송영으로 솟아오르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앞 장의 탄식 뒤에 환한 선언을 던진다. "이제 정죄함이 없다"(1절).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 육신을 따르는 삶을 가르고, 친밀한 호칭을 부른다 — "아빠 아버지"(15절). 우리가 자녀요 후사라 한다. 톤이 탄식으로 내려가, 피조물이 탄식하고 우리가 탄식하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다(22·23·26절). 그러나 그 탄식이 "고대함"으로 그려진다. 한 줄이 박힌다 —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28절). 다섯 동사가 사슬처럼 이어진다(29-30절). 마지막에 질문이 쏟아진다 — "누가 우리를 대적하라? 누가 정죄하라? 누가 끊으랴?" 환난도 칼도, 사망도 생명도 "끊을 수 없다"는 송영으로 닫힌다. 정죄 없음과 끊을 수 없음이 한 장의 양 끝을 감싼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세 무대 — 성령·육신(1-17)·탄식(18-30)·법정(31-39). pneuma가 메아리. 긴 나열(35-38-39).
2 첫 느낌·분위기	"정죄함이 없나니"로 환함. "아빠 아버지"의 친밀. 점점 솟는 질문.
3 시작과 끝	시작 — 정죄 없음(1). 끝 — 꿴을 수 없음(39). 두 부정이 양 끝을 감쌌.
4 등장인물·상황·사상	"우리"."성령"(증언·간구)·"피조물". 탄식이 고대로. 사상 = "위하여".
5 장면 컷	컷 1 성령의 법(1-11). 컷 2 양자(12-17). 컷 3 탄식(18-27). 컷 4 합력하여 선(28-30). 컷 5 송영(31-39).
6 의문·발견·정보	탄식 3회. "아빠"(abba). 소망의 역설(24). 다섯 동사 사슬. "누가" 후렴.
7 동영상	정죄 없음 → 아빠 아버지 → 탄식·고대 → 합력하여 선 → 다섯 동사 → 꿴을 수 없음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이제 정죄함이 없나니 — 누가 우리를 꿴으리요". 부제 — "정죄 없음의 선언에서, 꿴을 수 없는 사랑까지".
9 동영상 안 겹기·기도	"꿴을 수 없다"는 송영의 자리에 서서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두 부정의 수미:** "정죄함이 없나니"(1절)와 "꿴을 수 없으리라"(39절)가 양 끝을 감싼다. 부정으로 열려 부정으로 닫힌다.
2. **결 2 — 세 겹의 탄식:** 피조물·우리·성령이 같은 stenazo로 탄식한다(22·23·26절). 탄식이 절망이 아니라 고대로 그려진다.
3. **결 3 — 줄지는 "누가":** "누가 대적하라... 정죄하라... 꿴으라"(31-35절)가 수사적 질문으로 후렴을 이룬다. 답은 적히지 않고 송영이 채운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롬 7:24** (곤고한 사람 → 정죄 없음), **롬 5:5** (하나님의 사랑), **롬 8:18** (현재 고난과 장래 영광).
- 다른 권 — **갈 4:6** (아빠 아버지), **고후 4:17** (잠시 받는 환난).
- 정경 흐름 — 8장은 1-7장 논증의 절정이며, 9-11장이 그 사랑의 신실하심을 이스라엘로 이어 간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한 사람이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선언 앞에 선다.
- **멈춤 1:** "아빠 아버지"라는 친밀한 호칭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피조물·우리·성령의 세 겹 탄식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한 줄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정죄 없음과 꿴을 수 없음이 한 장에 있다\*는 결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꿴을 수 없으리라\*는 송영 앞\*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이제 정죄함이 없다
- [x] 성령을 따르는 삶과 육신을 따르는 삶이 갈린다
- [x]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이 있다
- [x] 피조물·우리·성령이 함께 탄식하며 고대한다
- [x]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 [x] "누가 꿔우리요"라는 질문이 줄지어 온다
- [x] 끝은 꿔울 수 없는 사랑의 송영이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꿔울 수 없는 사랑.

## 미해결 질문

로마서 8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탄식"이 세 주체(피조물·우리·성령)에 쓰인 까닭은?

- 같은 stenazo가 22·23·26절에 번갈아 놓임.
- 세 탄식의 관계는 본문이 못 박지 않음. 위치만 보존.

Q2. 왜 "아빠 아버지"(15)로 두 말을 겹치는가?

- 아람어 abba와 헬라어 "아버지"가 나란히 놓임.
- 두 언어를 겹친 까닭은 보류.

Q3.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24)의 역설은?

- 소망을 부정하며 정의하는 어법.
- 역설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어구만 기록.

Q4. 다섯 동사의 사슬(29-30)은 시간인가 논리인가?

- 미리 아심·정하심·부르심·의롭다 하심·영화롭게 하심이 줄지음.
- 사슬의 성격은 묵상으로 이월, 순서만 기록.

Q5. "누가"(tis) 질문들(31-35)은 왜 답을 적지 않는가?

- 대적·송사·정죄·꿔음을 물으나 직접 답하지 않음.
- 수사적 질문의 빈자리만 기록, 답은 보류.

Q6. 35절과 38-39절의 두 목록은 어떻게 다른가?

- 35절은 고난의 목록, 38-39절은 권세·차원의 목록.
- 두 목록의 차이만 기록, 관계는 보류.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로마서 9장

ROM-009 · 서신서 · 헬라어

골육을 향한 큰 슬픔이 택하심과 토기장이의 논증을 지나, 시온에 둔 한 걸림돌로 모인다.

## 관찰된 사실

### 로마서 9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편지 안의 논증 공간 — 탄식(1-5) → 족장(6-13) → 출애굽 바로(14-18) → 토기장이(19-29) → 돌 인용(30-33)으로 옮겨간다.
- 소품 = 토기장이·진흙·한 덩이·그릇(21절), 이스라엘이 받은 것들의 목록(4-5절).
- 인용 표지가 본문에 박힘 — 창 21:12(7절), 말 1:2-3(13절), 출 33:19(15절), 출 9:16(17절), 호 2장(25-26절), 사 10장(27-28절), 사 1장(29절), 사 8:28장(33절).
- Israel이 6절에서 혈통과 약속의 두 결로 쓰임.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첫머리가 무겁다(근심·고통, 2절). 8장 끝의 환호 바로 뒤라 대비가 크다.
- 가상의 반론(14·19절)이 법정 같은 공기를 만든다.
- 추상 논의 가운데 "토기장이·그릇"의 흙냄새가 손에 잡힌다.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2절: "큰 근심...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 탄식으로 열림.
- 33절: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 한 돌의 인용으로 닫힘.
- 슬픔 → 이유(율법의 행위 의지) → 돌로 좁혀진다.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글손이(1:3) / 형제·골육(3) / 조상(5) / 이삭·이스마엘(7) / 야곱·에서(13) / 모세(15) / 바로(17) / 토기장이(21) / 가상 반론자(19).
- 사상 = 택하심·부르심·공홀 —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11), "공홀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16), "공홀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느니라"(18).
- 인용으로 직조됨 — 호 2장(25-26), 사 10장(27-28), 사 1장(29).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5): 큰 근심, "차라리 저주를 받아도", 이스라엘이 받은 것들.
- 컷 2 (6-13): "말씀이 폐한 것 아니다", 이삭·야곱,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 컷 3 (14-18):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모세·바로, 공홀·완악.
- 컷 4 (19-29): 토기장이·그릇, 진노의 그릇·공홀의 그릇, 호세아·이사야.

- 컷 5 (30-33): 이방인 의를 얻음, 이스라엘 부딪침, "걸림돌".

## 6 – (1) 원어 카드

- Israel(Ἰσραήλ) – 이스라엘. 6절에서 혈통/약속의 두 걸.
- sperma(σπέρμα) – 씨. 7-8절 "약속의 자녀를 씨로 여기심".
- ekloge(ἐκλογή) – 택하심. 11절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 kaleo(καλέω) – 부르다. 11·24·25-26절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 eleeo(ἐλέεω) – 긍휼히 여기다. 15·16·18절.
- skleryno(σκληρύνω) – 완악하게 하다. 18절.
- keramews(κεραμεύς) – 토기장이. 21절.
- leimma(λεῖμμα) – 남은 자. 27절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사 10장).

## 6 – (2) 문학 구조

- 탄식(1-5) → 택하심 논증(6-29) → 결론(30-33)의 세 묶음.
- 가상 반론 2회 – 14절("불의가 있느냐"), 19절("어찌 허물하시느냐").
- 인용 사슬 – 25-29절에 호세아 2회·이사야 2회 연속.
- 22-23절은 조건문이 결론 없이 길게 열린 구문(미완결형).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토기장이 형상은 이사야 29:16·45:9·예레미야 18장의 걸을 잇는 구약 이미지 – 배경으로만.
- "긍휼·완악"은 출애굽 바로 서사(출 4-14장)에서 끌어옴 – 배경으로만.
- "남은 자"는 이사야 예언의 핵심어 – 인용 출처로만 기록.

## 6 – (4) 교차 참조 노트

- 롬 9:7 ↔ 창 21:12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
- 롬 9:13 ↔ 말 1:2-3 (야곱·에서)
- 롬 9:15 ↔ 출 33:19 (긍휼히 여기리라)
- 롬 9:17 ↔ 출 9:16 (바로를 세운 까닭)
- 롬 9:33 ↔ 사 8:14 / 사 28:16 (걸림돌·시온의 돌)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글쓴이가 무거운 탄식으로 연다. 골육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저주를 받아 끊어져도 좋다 하고, 이스라엘이 받은 것들을 펼친다. 곧 "말씀이 폐한 것은 아니다" 하며 이삭과 야곱으로 약속의 자녀가 혈통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섰음을 짚는다.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고, 모세의 "긍휼히 여기리라"와 바로의 "너를 세웠노라"를 나란히 두어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느니라"에 이른다. 반론자가 "어찌 허물하시느냐" 끼어들자 토기장이와 한 덩이로 답하고,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대비한다. 호세아와 이사야의 글이 쌓여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에 이르고, 이방인은 의를 얻고 이스라엘은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다 걸림돌에 부딪혔다는 한 줄로, 시온의 돌 인용으로 닫힌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공홀히 여기시는 이로 말미암아 — 토기장이와 한 덩이"
- 초벌 부제: "슬픔에서 토기장으로, 그리고 시온의 한 돌로"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인용 사술·토기장이 이미지·미완결 구문)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공홀·완약"(18)이 예정 교리로 굳지 않도록 → 본문 어휘 위치와 인용 출처만 기록.
- 토기장이(21)의 "귀·천 그릇"과 22-23절의 "오래 참으심"의 긴장은 미완결 구문으로만 보존, 관계는 보류.
- 16절 "공홀로 말미암음"과 32절 "행위를 의지함"의 병치는 어휘 분포만 기록.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로마서 9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큰 슬픔이 택하심과 토기장이의 논증을 지나 시온의 한 돌로 모이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글쓴이의 탄식으로 열린다. 골육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저주를 받아 끊어져도 좋다는 무게 위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은 아니다"가 못 박힌다. 이삭과 야곱, 모세와 바로, 토기장과 한 덩이의 흠이 차례로 무대에 오르고, 그 모든 형상은 "공홀히 여기시는 이로 말미암아"로 모인다. 끝에 이방인은 의를 얻고 이스라엘은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다 걸림돌에 부딪치며, 시온에 둔 돌의 인용 한 줄로 장이 닫힌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탄식(1-5) → 족장(6-13) → 바로(14-18) → 토기장이(19-29) → 돌(30-33). 소품 = 토기장이·진흙·그릇. 인용 표지 다수.
2 첫 느낌·분위기	무거운 첫머리, 법정 같은 반론, 흠냄새의 토기장이.
3 시작과 끝	시작 — 큰 근심(1-2). 끝 — 시온의 걸림돌(33). 슬픔에서 돌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글쓴이 / 골육 / 이삭·야곱 / 모세·바로 / 토기장이 / 반론자. 사상 = 택하심·부르심·공홀.
5 장면 컷	컷 1 탄식(1-5). 컷 2 족장(6-13). 컷 3 모세·바로(14-18). 컷 4 토기장이(19-29). 컷 5 걸림돌(30-33).
6 의문·발견·정보	3절의 강도. 미완결 구문(22-23). 인용 사슬(25-29). eleeo·skleryno·keramews·leimma.
7 동영상	탄식 → 족장 → 바로 → 토기장이 → 인용 사슬 → 걸림돌로 흐름.
8 초별 제목·부제	제목 — "공홀히 여기시는 이로 말미암아 — 토기장과 한 덩이". 부제 — "슬픔에서 토기장이로, 그리고 시온의 한 돌로".
9 동영상 안 걸기·기도	탄식과 토기장이의 손과 시온의 돌 곁을 걸으며 드린다. 답을 구하지 않는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걸**

- 결 1 — 두 걸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6절). 같은 단어가 혈통과 약속의 두 걸로 갈린다. 약속의 자녀는 부르심으로 선다.
- 결 2 — 공홀로 말미암아:**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공홀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16절). 달려감이 아니라 공홀이 먼저 놓인다.
- 결 3 — 부딪친 돌:** 이방인은 좇지 않고도 의를 얻고, 이스라엘은 좇았으나 부딪쳤다(30-32절). 본문은 "걸림돌"로 슬픔의 까닭을 모은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롬 8:31-39** (끊을 수 없는 사랑 / 9장의 슬픔), **롬 10-11** (이스라엘 논증의 이어짐).
- 다른 권 — **창 21:12 / 말 1:2-3 / 출 33:19-9:16** (택하심 인용), **사 10:1-8-28장 / 호 2장** (남은 자·걸림돌·내 백성).
- 정경 흐름 — 9장의 "남은 자"와 "걸림돌"은 11장의 "남은 자"·"접붙임"으로 이어지는 세 장 논증의 첫 자리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골육을 위한 큰 근심 곁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말씀이 폐한 것은 아니다"가 못 박히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토기장이의 손 아래 한 덩이 흠을 본다.
- **멈춤 3:** 인용이 쌓여 "남은 자만"에 이르는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부딪친 돌이 슬픔의 한가운데 있다\*는 곁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토기장이의 손 아래\*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글쓴이가 골육을 위해 큰 근심을 품는다
- [x] "말씀이 폐한 것은 아니다"가 못 박힌다
- [x] 약속의 자녀는 혈통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선다
- [x] 토기장과와 한 덩이가 무대에 오른다
- [x] 공흠이 사람의 달려감보다 먼저 놓인다
- [x] 인용이 쌓여 "남은 자만"에 이른다
- [x] 끝은 시온에 둔 한 걸림돌이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걸림돌.

## 미해결 질문

로마서 9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글쓴이는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3절)까지 거는가?**

- 골육을 위한 탄식의 강도가 8장 끝의 환호와 정반대다.
- 강도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말씀이 폐한 것 같지 않다"(6절)는 무엇을 먼저 못 박는가?**

- 이스라엘 일부가 받지 않은 자리에서 "말씀은 폐하지 않았다"가 앞선다.
- 순서의 까닭만 기록, 관계는 보류.

**Q3. 토기장이(21)와 "오래 참으심"(22)은 어떻게 함께인가?**

- 한 덩이의 귀·천 그릇과 "공흠의 그릇"이 같은 단락에 있다.
- 미완결 구문이라 본문이 결론을 끝까지 밀지 않음. 위치만 보존.

**Q4. "공흠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느니라"(18)는 어떻게 읽히는가?**

- 같은 절에 공흠과 완악이 나란히 놓인다.
- 관찰로는 어휘 병치만 기록, 관계는 보류.

**Q5. 16절 "공흠로 말미암음"과 32절 "행위를 의지함"은 어떻게 함께인가?**

- 하나님의 공흠과 사람의 달려감이 같은 장에 놓인다.
- 관계는 답하지 않고 분포만 보존.

**Q6. 왜 25-29절은 인용을 네 번 연달아 쌓는가?**

- 글쓴이가 자기 말 대신 옛 글을 쌓아 논증한다.
- 인용 사슬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로마서 10장

ROM-010 · 서신서 · 헬라어

궂궂을 향한 비는 기도가 가까운 말쑤과 입·마음의 고백을 지나, 종일 벌린 손으로 모인다.

## 관찰된 사실

### 로마서 10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논증 공간 — 기도(1-3) → 율법의 마침(4-8) → 입·마음 고백(9-13) → 보내심·들음(14-17) → 인용(18-21).
- 소품 = "입"과 "마음"의 짝(8·9·10절), "발"(15절), "말쑤"(8·17절).
- 인용 표지 — 신 30:12-14(6-8절), 사 28:16(11절), 율 2:32(13절), 사 52:7(15절), 신 32:21(19절), 사 65:1-2(20-21절).
- telos(4절)는 "궂궂/목표"의 두 뉘앙스 — 어느 결인지 보류.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9장의 근심이 10장에선 기도(1절)로 바뀌어 따뜻하게 열린다.
- 입·마음을 오가는 고백(9-10), 질문 사다리(14-15)가 몸으로 말하는 느낌.
- 궂궂의 인용이 안타까움으로 다시 열린다.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 비는 기도로 열린.
- 21절: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사 65장) — 벌린 손으로 닫힘.
- 비는 마음과 벌린 손이 마주 본다.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궂궂(1) / 형제(1) / 이스라엘·"그들"(1-3) / 모세(5·19) / 전파자·보냄받은 자(15) / 이사야(16·20).
- 진단 =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 아니라"(2), "자기 의를 세우려"(3).
- 사상 = 마음·입의 고백(9-10), "차별이 없다"(12), "부르는 자는 다 구원"(13).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 구원 기도, "지식을 따른 것 아니라", 자기 의.
- 컷 2 (4-8): "율법의 마침", 신명기 인용, "말쑤이 가까워".
- 컷 3 (9-13): 입·마음 고백, "차별이 없다", "부르는 자는 다 구원".
- 컷 4 (14-17): "어찌 부르리요" 사다리, "아름다운 발", "믿음은 들음에서".
- 컷 5 (18-21): "듣지 아니하였느냐", 모세·이사야, "종일 손을 벌렸노라".

## 6 – (1) 원어 카드

- zelos(ζήλος) – 열심. 2절 "지식을 따른 것 아니라".
- telos(τέλος) – 마침/끝/목표. 4절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
- dikaiosyne(δικαιοσύνη) – 의. 3절 "하나님의 의 / 자기 의".
- homologeo(ὁμολογέω) – 시인하다. 9·10절.
- kardia(καρδία) – 마음. 입(stoma)과 짝(9·10절).
- pistis(πίστις) / akoe(ἀκοή) / rhema(ῥῆμα) – 믿음/들음/말씀. 17절 연쇄.
- kerysso(κηρύσσω) – 전파하다. 14-15절 사다리.

## 6 – (2) 문학 구조

- 기도(1-3) → 가까운 말씀·고백(4-13) → 보냄·들음(14-17) → 인용(18-21)의 묶음.
- 입·마음 짝이 9·10절에서 순서를 바꿔 두 번(교차 구조).
- 14-15절의 "어찌 ~리요" 4단 사다리 → "아름다운 발" 인용에 닿음.
- 17절의 믿음→들음→말씀 연쇄.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6-8절은 신명기 30장의 "올라감·내려감"을 글쓴이가 한 겹 더 풀어 인용 — 인용 위에 해석을 얹은 형태(구문으로만 기록).
- "아름다운 발"(15절)은 이사야 52:7의 좋은 소식 이미지 — 인용 출처로만.
- 19-21절의 안타까움은 신 32·사 65장의 곁을 잇는다 — 배경으로만.

## 6 – (4) 교차 참조 노트

- 롬 10:6-8 ↔ 신 30:12-14 (네 입에·네 마음에)
- 롬 10:11 ↔ 사 28:16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 9:33과 같은 인용)
- 롬 10:13 ↔ 율 2:32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
- 롬 10:15 ↔ 사 52:7 (아름다운 발)
- 롬 10:19 ↔ 신 32:21 (내 백성 아닌 자로 시기하게)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연기

글쓴이가 골육의 구원을 비는 기도로 연다.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며 자기 의를 세우려던 자리를 짚는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 하고, 신명기를 들어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한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며 "차별이 없다",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에 이른다. 그러나 "어찌 믿지 않은 이를 부르며 전파하는 자 없이 들으랴" 사다리가 내려가 "아름다운 발"에 닿고, "믿음은 들음에서 났다" 한다. 끝으로 "들었으나 순종하지 않았다" 하며 모세와 이사야의 글로 "종일 손을 벌렸노라"에 이르는 한 줄로 닫힌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 들음에서 난 믿음"
- 초벌 부제: "비는 기도에서 가까운 말씀으로, 그리고 종일 벌린 손으로"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교차 구조·질문 사다리·인용 출처)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4절 "율법의 마침"의 telos가 "끝" 또는 "목표"로 굳지 않도록 → 두 뉘앙스만 기록, 결정은 보류.
- 9-10절 입·마음의 순서 차이는 교차 구조로만 보존, 신학적 우선순위는 보류.
- 16-18절 "들음"과 "순종 없음"의 병치는 어휘 분포만 기록.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로마서 10장은 골육을 향한 비는 기도가 가까운 말씀과 입·마음의 고백을 지나 종일 벌린 손으로 모이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구원을 비는 기도로 열린다.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진단 위에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 하고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가 놓인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고백은 "차별이 없다"로 넓어지고,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에 이른다. 그러나 부름은 들음에서, 들음은 전파에서, 전파는 보내심에서 온다는 사다리가 내려가 "아름다운 발"에 닿고, 끝에 종일 벌린 손의 인용으로 장이 닫힌다.

####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기도(1-3) → 마침(4-8) → 고백(9-13) → 들음(14-17) → 인용(18-21). 소품 = 입·마음·발·말씀.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2 첫 느낌·분위기	근심이 기도로 바뀐. 입·마음의 오감, 질문 사다리, 끝의 안타까움.
3 시작과 끝	시작 — 구원의 기도(1). 끝 — 종일 벌린 손(21). 비는 마음과 벌린 손이 마주 봄.
4 등장인물·상황·사상	글쓴이 / 형제 / 이스라엘 / 모세·이사야 / 전파자. 사상 = 마음·입 고백, 차별 없음.
5 장면 컷	컷 1 기도(1-3). 컷 2 마침·가까운 말씀(4-8). 컷 3 고백·차별 없음(9-13). 컷 4 사다리·발(14-17). 컷 5 인용(18-21).
6 의문·발견·정보	입·마음 교차(9-10). telos의 두 뉘앙스. 질문 사다리→인용. 믿음·들음·말씀 연쇄(17).
7 동영상	기도 → 가까운 말씀 → 고백 → 차별 없음 → 사다리·발 → 벌린 손으로 흐름.
8 초별 제목·부제	제목 —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 들음에서 난 믿음". 부제 — "비는 기도에서 가까운 말씀으로, 그리고 종일 벌린 손으로".
9 동영상 안 걸기·기도	가까운 말씀과 아름다운 발과 벌린 손 걸을 걸으며 드린다. 답을 구하지 않는다.

###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가까운 말씀:**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8절). 멀리 올라가거나 내려갈 것 없이 말씀은 입과 마음에 가깝다.
- 결 2 — 입과 마음의 짝:**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10절). 같은 짝이 순서를 바꿔 두 번 놓인다.
- 결 3 — 들음에서 난 믿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17절). 부름은 들음에서, 들음은 보내심에서 온다.

###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롬 9:33** (사 28:16 같은 인용 /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롬 9:11** (이스라엘 세 장 논증).
- 다른 권 — **신 30:12-14** / **신 32:21** (가까운 말씀·시기), **사 52:7** / **사 65:1-2** / **욥 2:32** (아름다운 발·벌린 손·이름을 부름).
- 정경 흐름 — 10장의 "차별 없음"과 "벌린 손"은 11장의 "이방인 들어옴"과 "온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자리다.

###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골육의 구원을 비는 기도 곁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말씀이 네게 가까워"라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입과 마음의 고백이 놓이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믿음은 들음에서 났다"는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가까운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다\*는 걸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종일 벌린 손 앞\*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글쓴이가 골육의 구원을 빈다
- [x]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놓인다
- [x] 말씀은 입과 마음에 가깝다
- [x]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고백이 있다
- [x] "차별이 없다"가 넓어진다
- [x]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 [x] 끝은 종일 벌린 손이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들음.

## 미해결 질문

로마서 10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4절 "율법의 마침"은 끝인가 목표인가?

- telos가 두 뉘앙스를 함께 가진다.
- 본문이 한 단어로만 두므로 답하지 않고 보존.

Q2. 9-10절은 왜 입·마음의 순서를 바꿔 두 번 말하는가?

- "입·마음"(9) → "마음·입"(10)으로 교차한다.
- 교차의 까닭만 기록, 관계는 보류.

Q3. "차별이 없다"(12)는 어디까지 펼쳐지는가?

- 유대인·헬라인을 한 주 아래 둔다.
- 펼침의 폭은 답하지 않고 보존.

Q4. 질문 사다리(14-15)의 끝이 왜 인용인가?

- "어찌 ~리요" 네 단이 "아름다운 발"에 닿는다.
- 사다리가 옛 글에 닿는 까닭은 보류.

Q5. "들음에서 났다"(17)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가?

- 믿음→들음→말씀의 연쇄가 한 줄에 놓인다.
- 연쇄의 방향은 분포만 보존.

Q6. 끝의 "종일 손을 벌렸노라"(21)는 누구의 손인가?

- 안타까움이 옛 글로 되울린다.
- 벌린 손의 결은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로마서 11장

ROM-011 · 서신서 · 헬라어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는 단호한 물음이 감람나무와 비밀을 지나, 송영의 아멘으로 봉해진다.

## 관찰된 사실

### 로마서 1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논증 공간 — 남은 자(1-10) → 넘어짐·이방인(11-16) → 감람나무(17-24) → 비밀·온 이스라엘(25-32) → 송영(33-36).
- 소품 = 감람나무·가지·뿌리(17-18), 참감람나무·돌감람나무(24), 엘리야의 칠천 명(4).
- 인용 표지 — 왕상 19장(2-4절), 신 29·사 29장(8절), 사 59:20-21(26-27절), 사 40:13·욥 41:11(34-35절).
- enkentrizo(접붙임)가 17·19·23·24절에 여섯 번. pleroma(충만)가 12·25절 두 번.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1절 "그럴 수 없느니라"의 단호함으로 열린다.
- 가운데 감람나무가 손에 잡히고, 끝에 송영이 환히 터진다.
- 남은 자·충만이 줄어듦과 채워짐으로 오간다.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 물음과 답으로 열림.
- 36절: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 송영으로 닫힘.
- 논증의 물음이 찬송의 아멘으로 간다. 32절 금홀 → 33절 노래.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글쓴이(베냐민 지파, 1) / 엘리야(2) / 칠천 명(4) / 남은 자(5) / 이방인(11-13) / "너"(돌감람나무 가지, 17-) / 이스라엘.
- 글쓴이 자신이 "버리지 않으셨다"의 첫 증거(1절).
- 사상 = 은혜와 행위의 가름(6), 인자와 준엄(22), 접붙임(17-24).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10): "그럴 수 없다", 엘리야·칠천 명, 남은 자, 은혜와 행위.
- 컷 2 (11-16): 넘어짐·시기하게 함, "첫 열매가 거룩하면".
- 컷 3 (17-24): 감람나무, 꺾임·접붙임, "두려워하라", "다시 접붙이심".
- 컷 4 (25-32): "이 비밀", 이방인 충만, "온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금홀".
- 컷 5 (33-36): 송영 — "깊도다 부요함이며", 세 물음, "만물이 주에게로".

## 6 – (1) 원어 카드

- leimma(λεῖμμα) – 남은 자. 5절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9:27과 같은 걸).
- charis(χάρις) / ergon(ἔργον) – 은혜 / 행위. 6절 가름.
- enkentrizo(ἐγκεντρίζω) – 접붙이다. 17·19·23·24절(여섯 번).
- elaia(ἐλαία) – 감람나무. 17·24절(참/돌).
- pleroma(πλήρωμα) – 충만. 12·25절.
- mysterion(μυστήριον) – 비밀. 25절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 bathos(βάθος) – 깊음. 33절 "깊도다 부요함이여".
- doxa(δόξα) – 영광. 36절 송영.

## 6 – (2) 문학 구조

- 논증(1-32) → 송영(33-36)의 두 묶음.
- enkentrizo 후렴 6회, pleroma 짝 2회.
- "그럴 수 없느니라"가 1·11절 두 번 반복(논증 표지).
- 송영이 세 물음(34-35)으로 짜임 – 노래가 인용된 물음 형식.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감람나무 접붙임은 농사 상식과 거꾸로(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 본문이 "본성을 거슬러"(24절)로 그 역방향을 의식 – 구문으로만 기록.
- 엘리야의 칠천 명(왕상 19장)은 "남은 자" 전승의 배경 – 인용 출처로만.
- "온 이스라엘"·"비밀"은 이사야 59장 인용과 묶임 – 배경으로만.

## 6 – (4) 교차 참조 노트

- 롬 11:3-4 ↔ 왕상 19:10-18 (엘리야·칠천 명)
- 롬 11:5 ↔ 롬 9:27 (남은 자)
- 롬 11:26-27 ↔ 사 59:20-21 (시온에서 오는 구원자)
- 롬 11:34 ↔ 사 40:13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 롬 11:35 ↔ 욥 41:11 (누가 먼저 드러 깊으심을 받으랴)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글쓴이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하고, 베냐민 지파인 자기를 첫 증거로 든다. 엘리야 때 칠천 명처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한다.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 하며,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한다 한다. 감람나무 한 그루가 서서, 본 가지 얼마가 꺾이고 돌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는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뿌리가 너를 보전한다", 인자와 준엄이 나란히 놓이고 본 가지도 다시 접붙이실 수 있다 한다.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에 이른다. 그리고 노래가 터져 "깊도다 부요함이여", 세 물음, "만물이 주에게서 주에게로", "아멘"으로 닫힌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 — 남은 자에서 송영으로"
- 초벌 부제: "단호한 물음에서 감람나무로, 그리고 송영의 아멘으로"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접붙임 역방향·엘리야 전승·송영의 인용 물음)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온 이스라엘"(26)이 특정 종말 도식으로 굳지 않도록 → 본문 어휘 위치와 인용 출처만 기록.
- "인자와 준엄"(22)을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도록 → 한 절의 두 단어 병치로만 보존.
- 접붙임의 "본성을 거슬러"(24)는 구문 형태로만 기록, 신학적 적용은 보류.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장의 골격

**한 문장:** 로마서 11장은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는 단호한 물음이 감람나무와 비밀을 지나 송영의 아멘으로 모이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는 물음과 답으로 열린다. 글쓴이는 베냐민 지파인 자기를 첫 증거로 들고, 엘리야의 칠천 명처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음을 짚는다. 가운데 감람나무 한 그루가 서서 본 가지의 꺾임과 돌감람나무 가지의 접붙임이 놓이고, "두려워하라"와 "인자와 준엄"이 나란히 선다. "이 비밀"이 열려 이방인의 충만함과 온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긍휼에 이르고, 끝에 논증은 갑자기 노래가 되어 "깊도다 부요함이어... 만물이 주에게로... 아멘"으로 닫힌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남은 자(1-10) → 이방인(11-16) → 감람나무(17-24) → 비밀(25-32) → 송영(33-36). 소품 = 감람나무·가지·뿌리·칠천 명.
2 첫 느낌·분위기	단호한 물음으로 열려 송영으로 환해짐. 남은 자·충만의 오감.
3 시작과 끝	시작 — "그럴 수 없느니라"(1). 끝 — "아멘"(36). 물음에서 송영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글쓴이(베냐민) / 엘리야·칠천 명 / 남은 자 / 이방인 / "너"(가지). 사상 = 은혜·행위, 인자·준엄, 접붙임.
5 장면 컷	컷 1 남은 자(1-10). 컷 2 이방인(11-16). 컷 3 감람나무(17-24). 컷 4 비밀(25-32). 컷 5 송영(33-36).
6 의문·발견·정보	enkentrizo 6회. "두려워하라"(20). pleroma 짝. "남은 자"와 "온 이스라엘". 송영의 세 물음.
7 동영상	물음 → 남은 자 → 이방인 → 감람나무 → 비밀 → 송영으로 흐름.
8 초별 제목·부제	제목 —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 — 남은 자에서 송영으로". 부제 — "단호한 물음에서 감람나무로, 그리고 송영의 아멘으로".
9 동영상 안 겹기·기도	감람나무 곁에서 접붙임 받은 가지를 보며, 송영을 들으며 드린다. 답을 구하지 않는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남은 자:**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5절). 버리지 않으셨음의 첫 증거는 남은 자다.
2. **결 2 — 접붙임과 두려움:**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요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니라"(18절). 접붙임 받은 가지는 높은 마음 대신 두려움에 선다.
3. **결 3 — 송영으로 단합:**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36절). 논증은 노래로, 노래는 한 동그라미로 봉해진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롬 9:27** (남은 자), **롬 9:10** (이스라엘 세 장 논증의 단합).
- 다른 권 — **왕상 19:10-18** (엘리야·칠천 명), **사 59:20-21 / 사 40:13 / 욥 41:11** (구원자·송영의 물음).
- 정경 흐름 — 11장의 송영은 9-11장 이스라엘 논증을 닫고, 12장의 "그러므로... 너희 몸을 산 제물로"라는 권면으로 넘어가는 경첩이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는 단호함 곁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를 본다.
- **멈춤 3:** "이 비밀"이 열리는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논증이 송영으로 봉해진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감람나무 곁, 두려움과 송영 사이\*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가 단호히 열린다
- [x]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 [x]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한다
- [x] 감람나무에 가지가 꺾이고 접붙여진다
- [x] 접붙임 받은 가지는 두려워하라는 말을 듣는다
- [x] "이 비밀"이 열려 온 이스라엘에 이른다
- [x] 끝은 송영의 아멘이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송영.

## 미해결 질문

로마서 11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남은 자"(5)와 "온 이스라엘"(26)은 어떻게 함께인가?

- 줄어든 남은 자와 온 이스라엘이 같은 장에 놓인다.
- 둘의 관계는 답하지 않고 보존.

Q2. 왜 접붙임 가지에게 "두려워하라"(20)인가?

- 은혜로 접붙임 받은 자리에서 두려움이 붙는다.
- 두려움의 까닭만 기록, 관계는 보류.

Q3. "인자와 준엄"(22)은 어떻게 한 절에 함께인가?

- 부드러움과 끊음이 나란히 놓인다.
- 관찰로는 어휘 병치만 기록.

Q4. "이방인의 충만함"(25)과 "그들의 충만함"(12)은 무엇인가?

- pleroma가 두 자리에서 짝을 이룬다.
- 충만의 결은 분포만 보존.

Q5. "이 비밀"(25)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비밀을 연다.
- 비밀의 폭은 답하지 않고 보존.

Q6. 왜 송영이 세 물음(34-35)으로 짜이는가?

- 노래가 옛 글의 물음으로 되어 있다.
- 물음 형식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로마서 12장

ROM-012 · 서신서 · 헬라어

"그러므로 너희 몸을 산 제물로"라는 큰 명령이 한 몸과 사랑의 동사들을 지나, "선으로 악을 이기라"로 모인다.

## 관찰된 사실

### 로마서 1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권면 공간 — 산 제물(1-2) → 한 몸·은사(3-8) → 사랑의 명령(9-13) → 원수·보복(14-21).
- 소품 = "몸"(1·4·5), 산 제물·예배, "한 몸 많은 지체", "숯불"(20).
- "그러므로"(1)가 11장 송영과 12장 권면을 잇는 경첩.
- 인용 표지 — 신 32:35(19절), 잠 25:21-22(20절).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1절 "몸을 산 제물로"가 무겁고 따뜻하게 열린다. 논증이 몸으로 옮겨감.
- 후반 짧은 명령이 쏟아져 숨이 가빠진다.
- 끝 21절 한 문장이 명령들을 모은다.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 큰 명령으로 열림.
- 21절: "선으로 악을 이기라" — 큰 명령으로 닫힘.
- 드림에서 이김으로. 가운데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에서 동사들이 갈라진다.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글쓴이(1:3) / "너희"·"각 사람"(3) / 한 몸의 지체(4-5) / 형제(10) / 핍박자(14) / 원수(20).
- 말투 = "권하노니"(1) — 명령이 아니라 권함.
- 사상 = 한 몸과 사랑(5·10), 은사 일곱(6-8), 화목(18).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2): "몸을 산 제물로", "변화를 받으라".
- 컷 2 (3-8): "지혜롭게 생각하라", 한 몸, 은사 일곱.
- 컷 3 (9-13):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의 동사, 손 대접.
- 컷 4 (14-21): 축복·함께 울기, 화목,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

#### 6 — (1) 원어 카드

- parakaleo(παρακαλέω) — 권하다. 1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 thysia(θυσία) — 제물. 1절 "산 제물".
- latreia(λατρεία) — 예배·섬김. 1절 "영적 예배".
- metamorphoo(μεταμορφώω) — 변화를 받다. 2절 ("본받다" syschematizo와 대비).
- anakainosis(ἀνακαίνωσις) — 새롭게 함. 2절 "마음을 새롭게 함".
- charisma(χάρισμα) — 은사. 6절 "받은 은혜대로".
- agape(ἀγάπη) — 사랑. 9절 "거짓이 없나니".
- nikao(νικάω) — 이기다. 21절 "선으로 악을 이기라".

## 6 — (2) 문학 구조

- 드림·분별(1-8) → 사랑·화목(9-21)의 두 묶음.
- 2절의 두 동사 대비 — syschematizo(겉틀) / metamorphoo(속형태).
- 은사 목록(6-8)이 "~대로"의 반복으로 일곱 나열.
- 14-21절의 짧은 명령들이 대구로 짜임(즐거워/올라, 축복/저주 말라).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산 제물"은 제사 용어(죽는 제물)에 "산"을 붙인 역설적 표현 — 어휘 형태로만 기록.
- "숯불을 머리에 싹아 놓으리라"(20)는 잠언 25장 인용 — 인용 출처로만.
-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19)는 신명기 32장 인용 — 배경으로만.

## 6 — (4) 교차 참조 노트

- 롬 12:1 ↔ 롬 6:13 (몸을 드림)
- 롬 12:4-5 ↔ 고전 12:12 (한 몸 많은 지체)
- 롬 12:19 ↔ 신 32:35 (원수 갚는 것은 내게)
- 롬 12:20 ↔ 잠 25:21-22 (원수를 먹이라·숯불)
- 롬 12:14 ↔ 마 5:44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그러므로" 하며 글쓴이가 권한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한다.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며 한 몸 많은 지체를 짚고, 받은 은혜대로 예언·섬김·가르침·위로·구제·다스림·공휼을 일곱으로 나열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라" 하고 형제를 우애·존경하며 손 대접에 힘쓰라 한다. 핍박자를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와 함께 울고, 낮은 데 처하라 한다. 끝으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라"에 이르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한 줄로 닫힌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너희 몸을 산 제물로 — 선으로 악을 이기라"
- 초벌 부제: "몸을 드리는 큰 명령에서 사랑의 동사들로,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산 제물 역설·두 동사 대비·은사 목록 형식)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4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산 제물"(1)을 곧바로 적용 설교로 풀지 않도록 → 역설적 어휘 형태로만 보존.
- 2절 두 동사(syschematizo/metamorphoo)는 대비로만 기록, 적용은 보류.
- 19-20절 보복 금지와 "숯불" 인용의 긴장은 배치만 기록, 결은 보류.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로마서 12장은 "그러므로 너희 몸을 산 제물로"라는 큰 명령이 한 몸과 사랑의 동사들을 지나 "선으로 악을 이기라"로 모이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앞 열한 장의 논증을 "그러므로"로 받아 몸으로 옮긴다.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 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한다. 한 몸 많은 지체가 받은 은혜대로 일곱 은사로 섬기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라"는 한 줄에서 사랑의 동사들이 쏟아진다. 핍박자를 축복하고 함께 울며 낮은 데 처하라는 짧은 명령들이 이어지고, 끝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는 인용을 지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한 문장으로 장이 봉해진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산 제물(1-2) → 한 몸·은사(3-8) → 사랑(9-13) → 원수·보복(14-21). "그러므로"가 경첩. 소품 = 몸·숯불.
2 첫 느낌·분위기	무겁고 따뜻한 첫 명령, 쏟아지는 짧은 명령, 끝의 한 문장.
3 시작과 끝	시작 — "몸을 산 제물로"(1). 끝 — "선으로 악을 이기라"(21). 드림에서 이김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글쓴이 / "너희"."각 사람" / 한 몸의 지체 / 핍박자·원수. 말투 = 권함. 사상 = 한 몸·사랑.
5 장면 컷	컷 1 산 제물(1-2). 컷 2 한 몸·은사(3-8). 컷 3 사랑(9-13). 컷 4 원수·보복(14-21).
6 의문·발견·정보	"산 제물"의 역설. 수동태 "변화를 받으라". 두 동사 대비. 은사 형식. 보복 뒤의 숯불.
7 동영상	몸 드림 → 분별 → 한 몸·은사 → 사랑의 동사 → 화목 →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흐름.
8 초별 제목·부제	제목 — "너희 몸을 산 제물로 — 선으로 악을 이기라". 부제 — "몸을 드리는 큰 명령에서 사랑의 동사들로,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제단과 한 몸의 지체들과 원수에게 먹이는 손 곁을 걸으며 드린다. 답을 구하지 않는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걸

1. **결 1 — 산 제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1절). 죽는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라는 역설이 첫 자리에 놓인다.
2. **결 2 — 곁들과 속형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2절). 같은 틀에 맞춰지는 것과 형태가 바뀌는 것이 두 동사로 마주 선다.
3. **결 3 — 선으로 이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21절). 쏟아진 사랑의 동사들이 한 큰 명령으로 모인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롬 6:13** (몸을 드림), **롬 11:36** (송영 → 12:1 "그러므로"의 경첩).
- 다른 권 — **고전 12:12** (한 몸 많은 지체), **신 32:35 / 잠 25:21-22** (원수 갚음·먹이라), **마 5:44** (핍박자 축복).
- 정경 흐름 — 12장의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13장의 "권세에 복종"과 "사랑은 율법의 완성"으로 이어지는 권면의 첫 자리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그러므로"가 논증을 몸으로 옮기는 자리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산 제물로 드러지는 제단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한 몸 많은 지체 사이에서 멈춘다.
- **멈춤 3:** 원수에게 먹이는 손을 보는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선으로 악을 이김이 한 큰 명령이다\*는 곁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제단과 원수의 식탁 사이\*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걸:

- [x] "그러므로"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한다
- [x]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한다
- [x] 한 몸 많은 지체가 은혜대로 섬긴다
- [x]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에서 동사들이 쏟아진다
- [x] 핍박자를 축복하고 함께 올라 한다
- [x] 원수 갚음을 내려놓으라 한다
- [x] 끝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이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이김.

## 미해결 질문

로마서 12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산 제물"(1)은 왜 죽음의 말과 삶의 말을 함께 두는가?

- 제물은 죽는 것인데 "산"이 앞에 붙는다.
- 역설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변화를 받으라"(2)가 왜 수동태인가?

- 스스로 바꾸라가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다.
- 수동의 결만 기록, 관계는 보류.

Q3. 겉틀과 속형태(2)의 대비는 어떻게 읽히는가?

- syschematizo와 metamorphoo가 한 절에 마주 선다.
- 관찰로는 어휘 대비만 기록.

Q4. 은사 일곱(6-8)은 왜 같은 형식으로 나열되는가?

- "~대로"의 반복으로 일곱이 줄짓는다.
- 목록 형식의 까닭은 보류.

Q5. 보복 금지(19) 뒤에 왜 "숯불"(20)이 오는가?

- 친히 갚지 말라 한 뒤 인용에 숯불이 온다.
- 배치만 보존, 결은 묵상에서.

Q6. "선으로 악을 이기라"(21)는 어디까지 미치는가?

- 쏟아진 명령들이 한 줄로 모인다.
- 이김의 폭은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로마서 13장

ROM-013 · 서신서 · 헬라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데서 시작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못이 되고, 밤이 깊은 때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부름으로 닫힌다.

## 관찰된 사실

### 로마서 1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셋 — 권세·조세의 행정(1-7), 계명을 사랑으로 묶음(8-10), 새벽(11-14).
- 소품 = "칼"(4절), "조세·관세"(7절), "빛의 갑옷"(12절).
- 계명 나열(9절) — 간음·살인·도둑질·탐심.
- "빛"(opheile)이 7·8절에 두 결로 놓임.
-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 흐르는 시간이 배경.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1-7절 단호한 명령("복종하라"), 8절부터 부드러워짐("사랑").
- 11절 "자다가 깰 때"에서 새벽 이미지 들어옴.
- "벗고/입으라"가 짝으로 나옴(12절).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권세에 복종하라" — 복종으로 열림.
-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 옷 입음으로 닫힘.
- 10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가운데 못으로 박힘.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바울 / "각 사람" / "권세 잡은 자"("하나님의 사역자", 4·6절).
- 상황 = 명령("복종하라"·"바치라"·"빛지지 말라"·"입자").
- 사상 = 사랑이 묶음(9절) — 여러 계명이 한 말씀에 다 들림.
- 대구 = 갓을 빛 ↔ 끝나지 않는 사랑의 빛(opheile, 7-8절).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5): 복종 — 권세는 하나님에 정함, 양심을 따라.
- 컷 2 (6-7): 조세 — 줄 것을 주라.
- 컷 3 (8-10): 사랑의 빛 — 계명이 사랑으로 다 들림.
- 컷 4 (11-14): 새벽 — 깰 때, 빛의 갑옷, 옷 입음.

## 6 – (1) 원어 카드

- exousia(ἐξουσία) — 권세. 1절.
- hypotasso(ὑποτάσσω) — 복종하다·아래 두다. 1·5절.
- leitourgos(λειτουργός) — 일꾼·공직자. 6절.
- opheile(ὀφειλή) — 빚·갚을 것. 7·8절.
- agape(ἀγάπη) — 사랑. 8-10절.
- pleroma(πλήρωμα) — 완성·채움. 10절.
- hopla(ὄπλα) — 무기·갑옷. 12절.
- endyo(ἐνδύω) — 입다. 12·14절.

## 6 – (2) 문학 구조

- 권세(1-7) → 사랑(8-10) → 새벽(11-14)의 세 묶음.
- 계명 나열(9) → "사랑은 율법의 완성"(10)으로 모임.
- "벗고"(apothemi)/"입자"(endyo)의 옷 대구(12).
- "빚"(opheile)이 갚음과 사랑으로 두 결(7-8).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9절 계명은 십계명 후반부(출 20 / 신 5) 인용, "이웃 사랑"은 레 19:18 인용(배경).
- "조세·관세"(7절)는 1세기 로마 제국의 세금 제도를 전제(배경으로만).
- 1-7절은 12장 "악을 선으로 이기라"의 권면을 이어받음(배경).

## 6 – (4) 교차 참조 노트

- 롬 13:9 ↔ 출 20:13-17 / 신 5:17-21 (계명)
- 롬 13:9 ↔ 레 19:18 (네 이웃을 사랑하라)
- 롬 13:10 ↔ 갈 5:14 (사랑으로 율법 이룸)
- 롬 13:12 ↔ 엡 6:11-13 (빛/하나님의 전신갑주)
- 롬 13:1 ↔ 벧전 2:13-14 (인간 제도에 순종)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한 사람이 단호히 명령한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권세 잡은 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라 부른다. 그리고 갚을 것을 말한다 —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톤이 부드러워진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 계명이 한 말씀으로 모인다. 그리고 시간을 가리킨다 —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새벽이 밝아 온다. 마지막에 옷을 갈아입는다 —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 빛의 갑옷을 입으라"
- 초벌 부제: "권세에 복종하는 자리에서, 빛의 갑옷까지"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십계명 인용·세금 제도·옷 대구)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4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권세에 복종하라"가 정치 신학 단정으로 굳지 않도록 → hypotasso 위치만 기록.
-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율법 무용/유용 논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 pleroma 어구만 보존.
- "빛의 갑옷"을 종말론 강론으로 확대하지 않고 옷 대구 분포로만 기록.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로마서 13장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명령으로 열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을 못으로 박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새벽에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부름으로 닫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단호히 명령한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권세 잡은 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라 부르고, 갓을 것을 말한다 —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톤이 부드러워진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이지 말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10절). 여러 계명이 한 말씀으로 모인다. 그리고 시간을 가리킨다 —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11-12절). 새벽이 밝아 온다. 마지막에 옷을 갈아입는다 —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14절). 복종과 사랑과 빛이 한 장 안에 이어진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세 무대 — 권세·조세(1-7)·사랑(8-10)·새벽(11-14). 소품 = 칼·조세·갑옷. "빛"이 두 결.
2 첫 느낌·분위기	1-7 단호, 8절부터 부드러움. 새벽 이미지. "벗고/입으라" 짝.
3 시작과 끝	시작 — 복종(1). 끝 — 옷 입음(14). 10절이 가운데 못.
4 등장인물·상황·사상	바울·"각 사람"·"하나님의 사역자". 명령 동사. 사상 = 사랑이 묶임(9).
5 장면 컷	컷 1 복종(1-5). 컷 2 조세(6-7). 컷 3 사랑의 빛(8-10). 컷 4 새벽·갑옷(11-14).
6 의문·발견·정보	"빛" 두 결(7·8). "양심을 따라"(5). 계명 인용. 옷·시간의 겹침(12-13).
7 동영상	복종 → 조세 → 사랑의 빛 → 율법의 완성 → 새벽 → 빛의 갑옷으로 흐름.
8 초별 제목·부제	제목 —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 빛의 갑옷을 입으라". 부제 — "권세에 복종하는 자리에서, 빛의 갑옷까지".
9 동영상 안 걸기·기도	"꽤 때가 되었다"는 새벽의 자리에 서서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사역자라 불리는 권세:**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의 사역자"(4·6절)로 불린다. 바깥 질서가 하나님께 매인다.
- 결 2 — 한 말씀으로 모이는 계명:** 여러 계명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한 말씀에 "다 들었다"(9절). 나열이 한 줄로 모인다.
- 결 3 — 옷으로 그린 시간:** "어둠을 벗고 빛을 입자"(12절). 새벽이라는 시간이 옷 갈아입음으로 그려진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롬 12:1-2** (몸을 산 제물로), **롬 12:21** (악을 선으로 이김), **롬 14:1** (믿음이 연약한 자).
- 다른 권 — **레 19:18** (네 이웃을 사랑하라), **엡 6:11-13** (하나님의 전신갑주), **벧전 2:13-14** (인간 제도에 순종).
- 정경 흐름 — 13장의 사랑은 12장 "산 제물"의 윤리를 이어 가며, 14-15장이 그 사랑을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로 옮긴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한 사람이 "권세에 복종하라"는 명령 앞에 선다.
- **멈춤 1:** "줄 것을 주라"는 갚음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한 줄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자다가 꽤 때가 되었다"는 새벽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복종과 사랑과 빛이 한 장에 있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빛의 갑옷을 입자는 부름 앞\*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 [x] 권세 잡은 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 [x]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라
- [x] 사랑의 빛 외에는 빛지지 말라
- [x]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 [x]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 [x]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사랑은 율법의 완성.

## 미해결 질문

로마서 13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양심을 따라"(5) 복종하라 하는가?

- 두려움만이 아니라 양심을 든 것이 인상적임.
- 두 동기의 관계는 본문이 못 박지 않음. 위치만 보존.

Q2. "빛"(opheile, 7·8)이 두 결로 쓰인 까닭은?

- 값을 빛과 끝나지 않는 사랑의 빛이 같은 단어로 놓임.
- 두 빛의 관계는 보류.

Q3. 여러 계명이 한 말씀에 "다 들었다"(9)는 어떻게인가?

- 계명 나열이 "이웃 사랑" 한 줄로 모임.
- 모임의 방식은 답하지 않고 구조만 기록.

Q4. 권세 복종(1-7)과 사랑·빛(8-14)은 어떻게 한 장에 묶이는가?

- 제도와 사랑이 한 권면 안에 이어짐.
- 두 묶음의 연결은 묵상으로 이월.

Q5. "잠"과 "깨"(11)은 어떤 상태인가?

- 잠과 깨이 영적 상태처럼 그려짐.
- 상태의 정체는 묵상으로 이월, 대비만 기록.

Q6. "옷 입으라"(14)는 무엇을 입는 것인가?

-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endyo).
- 옷 입음의 뜻은 보류, 동사 위치만 기록.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로마서 14장

ROM-014 · 서신서 · 헬라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는 데서 시작해, 먹고 마시며 날을 지키는 차이 앞에서 "비판하지 말라"가 못이 되고, 형제를 거리까지 않게 하라는 데로 닫힌다.

## 관찰된 사실

### 로마서 1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둘 — 약한 자·강한 자가 마주 봄(1-12), 걸림이 되지 않으려는 자리(13-23). 식탁이 무대.
- 소품 = "채소"(2절), "날"(5절), "걸림돌"(13절).
- 짝 소재 — 먹는 자/먹지 않는 자, 이 날/저 날, 강한 자/약한 자.
- "주를 위하여"(6절)가 후렴처럼 반복됨.
- 4절 "주인 앞에 서고 넘어짐" — 종의 그림이 배경.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조심스러운 톤 — "비판하지 말라"(3·4·10·13)가 거듭됨.
- 4절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의 정곡을 찌르는 반문.
- 7-8절의 짧은 대구가 축으로 박힘.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 받음으로 열림.
- 23절: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 믿음으로 닫힘.
- 13절 "서로 비판하지 말고... 거칠 것을 두지 말라"가 경첩으로 박힘.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바울 / "믿음이 연약한 자"·강한 자 / "주"(모두의 주인).
- 상황 = 차이 — 음식·날에서 걸림(2·5절).
- 사상 = "주께"(6-8) — 먹음·안 먹음·살·죽음이 한 주인 앞으로.
- 대구 = 걸림돌(proskomma) ↔ 세움(oikodome), 13·19절.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4): 받음 —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 컷 2 (5-9): 주를 위하여 — 먹든 안 먹든, 살든 죽든.
- 컷 3 (10-12): 심판대 — 각각 하나님 앞에 직고.
- 컷 4 (13-23): 거리낌 — 걸림돌 두지 말라, 화평·덕을 세움.

## 6 – (1) 원어 카드

- asthenes(ἀσθενής) – 연약한. 1절.
- krino(κρίνω) – 비판하다·판단하다. 3·4·10·13절.
- exoutheneo(ἐξουθενέω) – 업신여기다. 3·10절.
- kyrios(κύριος) – 주. 6-9절 거듭.
- proskomma(πρόσκομμα) – 걸림돌. 13·20절.
- oikodome(οἰκοδομή) – 세움·덕. 19절.
- diakrino(διακρίνω) – 의심하다·갈라 판단하다. 23절.
- pistis(πίστις) – 믿음. 1·22·23절.

## 6 – (2) 문학 구조

- 비판(1-12) → 거리낌(13-23)의 두 묶음.
- "주를 위하여"(6) 후렴, "주 앞에/하나님 앞에"(4·10·12) 반복.
- 걸림돌 ↔ 세움(13·19)의 대구.
- 14절의 한 문장 안 객관("속된 것이 없으되")/주관("속되게 여기면 속되니라").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11절 "모든 무릎이 꿇으리라"는 이사야 45:23 인용(배경).
- 음식·날 논쟁은 1세기 유대·이방 신자의 식습관·절기 배경(배경으로만).
- 13장 "사랑은 율법의 완성"을 약한 자·강한 자 사이로 이어받음(배경).

## 6 – (4) 교차 참조 노트

- 롬 14:11 ↔ 사 45:23 (모든 무릎이 꿇으리라)
- 롬 14:1 ↔ 롬 15:1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 롬 14:13 ↔ 고전 8:9-13 (걸림돌과 약한 양심)
- 롬 14:17 ↔ 롬 8:6 (성령 안의 평강)
- 롬 14:10 ↔ 고후 5:10 (그리스도의 심판대)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한 사람이 부드럽게 연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와 채소만 먹는 자를 나란히 놓고 반문한다 —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고 넘어지는 것은 자기 주인에게 있다." 톤이 모든 것을 한 주인 앞으로 모은다.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우리는 주의 것이다." 그리고 "각각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고 한다. 시선이 형제에게로 옮겨간다. "걸림돌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마지막에 "화평과 덕을 세우라"는 권면이 울리고,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는 한 줄로 닫힌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비판하지 말라 —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 초벌 부제: "약한 자를 받는 자리에서, 형제를 세우는 일까지"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이사야 인용·식습관 배경·대구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4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비판하지 말라"가 관용주의 단정으로 굳지 않도록 → krino/exoutheneo 위치만 기록.
- "하나님의 나라"(17)가 신학 강론으로 변지지 않도록 → 17절 정의 어구만 보존.
-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죄"(23)를 양심론 단정으로 확대하지 않고 어구만 기록.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로마서 14장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는 데서 열어, 음식과 날의 차이 앞에서 "비판하지 말라"를 못으로 박고, 형제 앞에 걸림돌을 두지 말고 화평과 덕을 세우라는 데로 닫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부드럽게 연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와 채소만 먹는 자를 나란히 놓고 반문한다 –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고 넘어지는 것은 자기 주인에게 있다"(4절). 톤이 모든 것을 한 주인 앞으로 모은다.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우리는 주의 것이다"(8절). 그리고 "각각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고 한다. 시선이 형제에게로 옮겨간다. "걸림돌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과 희락이다"(17절). 마지막에 "화평과 덕을 세우라"는 권면이 울리고,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23절)는 한 줄로 닫힌다. 비판과 거리낌이 한 장 안에 나란히 놓인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두 무대 — 마주 봄(1-12)·걸림 없음(13-23). 식탁이 무대. "주를 위하여" 후렴.
2 첫 느낌·분위기	조심스러운 톤. "비판하지 말라" 거둬. 4절 반문. 7-8절 대구.
3 시작과 끝	시작 — 약한 자를 받음(1). 끝 — 믿음(23). 13절이 경첩.
4 등장인물·상황·사상	약한 자·강한 자·"주". 차이(2·5). 사상 = "주께"(6-8).
5 장면 컷	컷 1 받음(1-4). 컷 2 주를 위하여(5-9). 컷 3 심판대(10-12). 컷 4 거리낌(13-23).
6 의문·발견·정보	두 방향의 시선(3). "각각 확정"(5). 사 45:23 인용(11). 걸림돌/세움 대구.
7 동영상	받으라 →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 주의 것 → 심판대 → 걸림돌 두지 말라 → 세움으로 흐름.
8 초별 제목·부제	제목 — "비판하지 말라 —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부제 — "약한 자를 받는 자리에서, 형제를 세우는 일까지".
9 동영상 안 걸기·기도	"각각 주 앞에 선다"는 자리에 서서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러낸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정곡을 찌르는 반문:**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4절). 시선을 거두게 하는 한 물음이 단을 연다.
2. **결 2 — 한 주인 앞으로 모음:** 먹음·안 먹음·삶·죽음이 모두 "주를 위하여"(6-8절)로 모인다. 차이가 한 주인 앞에서 상대화된다.
3. **결 3 — 걸림돌과 세움의 대구:** "걸림돌"(proskomma)을 두지 말고 "세우라"(oikodome)(13-19절). 형제를 향한 두 방향이 갈린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롬 13:10** (사랑은 율법의 완성), **롬 15:1**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롬 8:6** (성령 안의 평강).
- 다른 권 — **사 45:23** (모든 무릎이 꿇으리라), **고전 8:9-13** (걸림돌과 약한 양심), **고후 5:10** (그리스도의 심판대).
- 정경 흐름 — 14장의 "약한 자를 받으라"는 1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같이"로 곧바로 이어진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한 사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는 권면 앞에 선다.
- **멈춤 1:**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는 반문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라는 고백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걸림돌을 두지 말라"는 권면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비판과 거리낌이 한 장에 있다\*는 결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각각 주 앞에 선다는 자리 앞\*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 [x]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는 반문이 박힌다
- [x] 먹든 안 먹든 주를 위하여 한다
- [x] 우리는 주의 것이다
- [x] 각각 하나님 앞에 직고한다
- [x] 걸림돌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 [x]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걸림돌이 아니라 세움.

## 미해결 질문

로마서 14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차이를 없애지 않고 "각각 마음으로 확정"(5)하라 하는가?

- 음식·날의 차이를 각자에게 맡김.
- 차이를 둔 까닭은 본문이 못 박지 않음. 위치만 보존.

Q2. "업신여김"과 "비판"(3)은 왜 두 방향인가?

- 강한 자는 업신여기고(exoutheneo), 약한 자는 비판함(krino).
- 두 방향의 관계는 보류.

Q3. 14절의 객관과 주관은 어떻게 한 문장에 있는가?

- "속된 것이 없으되"와 "속되게 여기면 속되니라"가 부딪침.
- 둘의 경계는 답하지 않고 어구만 기록.

Q4. 17절 "하나님의 나라" 정의는 왜 여기 박히는가?

- 음식 논의 한가운데 나라의 정의가 들어옴.
- 삽입의 자리는 묵상으로 이월.

Q5. 걸림돌(proskomma)과 세움(oikodome)은 어떻게 갈리는가?

- 두 단어가 형제를 향한 두 방향으로 대비됨.
- 대비만 기록, 관계는 보류.

Q6.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죄"(23)는 어디까지인가?

- 믿음(pistis)과 의심(diakrino)이 한 절에 맞섬.
- 죄의 범위는 묵상으로 이월, 어구만 기록.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로마서 15장

ROM-015 · 서신서 · 헬라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라는 데서 시작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같이 서로 받으라"가 못이 되고, 이방을 향한 사역과 로마 방문 계획으로 흐른다.

## 관찰된 사실

### 로마서 1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셋 — 공동체 권면(1-13), 이방인의 제사장 바울(14-21), 지도 위의 여정(22-33).
- 소품 = "연보"(26절), "제물"(16절).
- 지명 나열 — 예루살렘·일루리곤(19), 서바나(24·28), 마게도냐·아가야(26).
- 축복 기도 두 번 — "소망의 하나님"(13)·"평강의 하나님"(33).
- 22절 "여러 번 막혔더니" — 못 간 사정이 1:13과 이어짐(배경).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1-13절 권면, 14절부터 개인적 말투("내가... 너희에게").
- 13절 축복 기도가 송별처럼 들림.
- 9-12절 구약 인용 묶음이 줄지음.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강한 우리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 담당으로 열림.
-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 평강으로 닫힘.
- 7절 "서로 받으라"가 가운데 못, 13·33절 두 축도가 매듭.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바울("나", 14절~) / "이방인"(함께 찬송, 제물처럼 드러짐).
- 상황 = 마무리(1-13)·돌아봄(14-21)·계획(22-33).
- 사상 = "그리스도같이"(3·7) — 본보기로 거듭.
- 제사 언어 — "제사장 직분"·"제물"(prosphora)이 사역에 입혀짐(16절).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6): 담당 — 한마음으로.
- 컷 2 (7-13): 서로 받음 — 이방인 구약 인용, 소망의 축복.
- 컷 3 (14-21): 사역 — 이방인의 제사장, 일루리곤까지.
- 컷 4 (22-29): 계획 — 예루살렘 연보, 로마·서바나.

- 컷 5 (30-33): 부탁 — 기도, 평강의 축복.

## 6 — (1) 원어 카드

- dynatos(δυνατός) — 강한·능한. 1절.
- proslambano(προσλαμβάνω) — 받아들이다. 7절.
- elpis(ἐλπίς) — 소망. 13절.
- leitourgος(λειτουργός) — 일꾼·제사장적 봉사자. 16절.
- prosphora(προσφορά) — 제물·드림. 16절.
- oikodomeo(οἰκοδομέω) — 건축하다. 20절.
- synagonizomai(συναγωνίζομαι) — 함께 힘써 싸우다. 30절.
- eirene(εἰρήνη) — 평강. 33절.

## 6 — (2) 문학 구조

- 권면(1-13) → 사역(14-21) → 여정(22-33)의 세 묶음.
- 두 축도 — "소망의 하나님"(13)·"평강의 하나님"(33)이 매듭.
- 9-12절 구약 인용 4중 묶음(이방인 주제).
- "그리스도같이"(3·7)의 본보기 반복.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9-12절 인용 — 시 18:49, 신 32:43, 시 117:1, 사 11:10(이방인 주제, 배경).
- 26절 "연보"는 바울이 모은 예루살렘 구제 헌금을 가리킴(배경으로만).
- 19·24·28절 지명은 1세기 지중해 세계의 실제 여정(배경).

## 6 — (4) 교차 참조 노트

- 롬 15:3 ↔ 시 69:9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 롬 15:7 ↔ 롬 14:1 (약한 자를 받으라)
- 롬 15:9-12 ↔ 시 18:49 / 신 32:43 / 시 117:1 / 사 11:10 (이방인)
- 롬 15:20 ↔ 고전 3:10 (남의 터 위에 짓지 않음)
- 롬 15:25-26 ↔ 고전 16:1-4 (예루살렘 연보)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한 사람이 권면을 매듭짓는다. "강한 우리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한마음으로 한 입으로 찬송하라 하고, 못을 박는다 —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이 함께 찬송하는 구약 구절들을 줄지어 인용한다. 톤이 개인적으로 바뀐다. "나는 이방인의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 남의 터 위에 짓지 않으려 했다." 그리고 여정을 펼친다. "여러 번 막혔다. 이제 예루살렘에 연보를 전하고, 너희를 거쳐 서바나로 가려 한다." 마지막에 부탁이 온다 — "나를 위하여 함께 힘써 기도하라."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으로 닫힌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같이 — 서로 받으라"
- 초벌 부제: "서로 받으라는 권면에서, 서바나를 향한 여정까지"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구약 4중 인용·연보·여정 지리)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이방인의 제사장 직분"이 직제 신학으로 굳지 않도록 → leitourgos/prosphora 위치만 기록.
- 구약 4중 인용을 선교 신학 강론으로 번지지 않게 → 인용 출처 위치만 보존.
- 여정 계획을 전기적 단정으로 확대하지 않고 지명·동사 분포로만 기록.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로마서 15장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라는 데서 열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같이 서로 받으라"를 못으로 박고, 이방인을 위한 사역과 예루살렘·로마·서바나의 여정을 지나 "평강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달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권면을 매듭짓는다. "강한 우리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한마음으로 한 입으로 찬송하라 하고, 못을 박는다 —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7절). 이방인이 함께 찬송하는 구약 구절들을 줄지어 인용한다(9-12절). 톤이 개인적으로 바뀐다. "나는 이방인의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 남의 터 위에

짓지 않으려 했다"(16-20절). 그리고 여정을 펼친다 — "여러 번 막혔다. 이제 예루살렘에 연보를 전하고, 너희를 거쳐 서바나로 가려 한다"(22-28절). 마지막에 "나를 위하여 함께 힘써 기도하라" 부탁하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33절)으로 닫힌다. 권면과 사역과 여정이 한 장 안에 이어진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세 무대 — 공동체(1-13)·바울 사역(14-21)·여정(22-33). 소품 = 연보·제물. 지명 나열.
2 첫 느낌·분위기	권면 뒤 개인적 말투. 13절 송별 같은 축도. 구약 인용 묶음.
3 시작과 끝	시작 — 담당(1). 끝 — 평강의 축복(33). 7절 못, 13·33 두 축도.
4 등장인물·상황·사상	바울·"이방인". 마무리·돌아봄·계획. 사상 = "그리스도같이"(3·7).
5 장면 컷	컷 1 담당(1-6). 컷 2 서로 받음(7-13). 컷 3 사역(14-21). 컷 4 계획(22-29). 컷 5 부탁(30-33).
6 의문·발견·정보	두 축도(13·33). 제사 언어(16). 구약 4중 인용(9-12). oikodomeo(20).
7 동영상	담당 → 서로 받으라 → 이방인 찬송 → 사역 돌아봄 → 여정 → 평강의 축복으로 흐름.
8 초별 제목·부제	제목 —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같이 — 서로 받으라". 부제 — "서로 받으라는 권면에서, 서바나를 향한 여정까지".
9 동영상 안 겹기·기도	"서로 받으라"는 권면의 자리에 서서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본보기로 선 그리스도:** 약한 자 담당(3절)과 서로 받음(7절)의 근거로 그리스도가 거듭 놓인다. 윤리가 본보기에 매인다.
- 결 2 — 두 축도의 매듭:** "소망의 하나님"(13절)과 "평강의 하나님"(33절)이 단의 매듭마다 놓인다. 권면과 여정이 축도로 묶인다.
- 결 3 — 사역에 입혀진 제사 언어:** 복음 전함이 "제사장 직분"과 "제물"(prospora)로 그려진다(16절). 사역이 드림으로 그려진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롬 14:1 (약한 자를 받으라), 롬 1:13 (여러 번 막힘), 롬 16:1 (문안의 시작).
- 다른 권 — 시 18:49 / 신 32:43 / 시 117:1 / 사 11:10 (이방인 인용), 고전 16:1-4 (예루살렘 연보).
- 정경 흐름 — 15장의 "서로 받으라"는 14장 권면의 결론이며, 16장 긴 문안이 그 받음을 이름으로 채운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한 사람이 "약한 자를 담당하라"는 권면 앞에 선다.
- 멈춤 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같이"라는 한 줄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이방인이 함께 찬송하는 구약 인용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라는 여정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권면과 사역과 여정이 한 장에 있다\*는 결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서로 받으라는 권면 앞\*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강한 우리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 [x]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같이 서로 받는다
- [x] 이방인이 함께 찬송한다
- [x] 바울이 이방인의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
- [x]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
- [x] 예루살렘 연보 후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가려 한다
- [x] 끝은 평강의 하나님의 축복이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서로 받으라.

#### 미해결 질문

로마서 15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사역을 "제사장 직분"(16) 언어로 그리는가?

- 복음 전함을 드림(prosphora)으로 그림.
- 제사 언어를 쓴 까닭은 본문이 못 박지 않음. 위치만 보존.

Q2. 두 축도(13:33)는 왜 같은 꼴로 두 번인가?

- "소망의 하나님"과 "평강의 하나님"이 단의 매듭마다 놓임.
- 두 축도의 자리는 보류.

Q3. 9-12절 구약 인용은 어떻게 한 주제로 묶이는가?

- 네 곳이 다 "이방인"을 부름.
- 묶임의 방식은 답하지 않고 출처만 기록.

Q4. 로마가 종착지가 아니라 경유지인 까닭은?

- "서바나로 갈 때 들르려"(24)·"서바나로 가리라"(28)가 거듭됨.
- 경유지로 그려진 까닭은 묵상으로 이월.

Q5. "남의 터 위에 짓지 않으려"(20)는 어떤 원칙인가?

- 건축(oikodomeo) 비유가 사역에 쓰임.
- 원칙의 범위는 보류, 어구만 기록.

Q6. 예루살렘 연보(26)는 왜 여정의 한가운데 있는가?

- 로마로 가기 전 예루살렘을 먼저 들름.

- 순서의 까닭은 목상으로 이월, 위치만 기록.

이 질문들은 목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로마서 16장

ROM-016 · 서신서 · 헬라어

일꾼 뵤뵤를 천거하는 데서 시작해, 스물여섯 이름의 긴 문안이 못이 되고, "평강의 하나님"의 약속과 영원하신 분께 드리는 송영으로 닫힌다.

## 관찰된 사실

### 로마서 1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셋 — 뵤뵤 천거(1-2), 이름의 문안(3-16), 동역자 인사·송영(21-27). 경계(17-20)가 사이에 낀.
- 소품 = "입맞춤"(16절), 부부 동역자 "브리스가·아굴라"(3절).
- 이름 나열 — 뵤뵤·에베네도·마리아·안드로니코·유니아 등 스물여섯.
- "문안하라"(aspazomai)가 후렴처럼 거듭됨.
- 1절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뵤뵤" — 여성을 일꾼으로 천거(배경).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따뜻함 —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줌.
- 17절에서 톤이 잠깐 단단해짐("떠나라").
- 20·27절 송영으로 닫힘.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뵤뵤를... 천거하노니" — 한 사람의 이름으로 열림.
- 27절: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 송영으로 닫힘.
- 16·20·27절에 매듭이 세 번 — 입맞춤·평강·영광.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바울 / 문안받는 이 스물여섯 / 동역자 여덟(디모데·더디오 등). 등장인물 최다 장.
- 상황 = 인사 + 한 번의 경계(17-20).
- 사상 = "주 안에서" — 이름마다 붙음.
- 대구 = 동역(synergos) ↔ 걸림(skandalon), 9·17절.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2): 천거 — 일꾼 뵤뵤를 받으라.
- 컷 2 (3-16): 문안 — 스물여섯 이름, 거룩한 입맞춤.
- 컷 3 (17-20): 경계 — 분쟁을 일으키는 자, 평강의 하나님.
- 컷 4 (21-27): 동역자 인사와 송영 — 영원하신 분께 영광.

## 6 – (1) 원어 카드

- synistemi(συνίστημι) – 천거하다·소개하다. 1절.
- diakonos(διάκονος) – 일꾼·봉사자. 1절.
- prostatis(προστάτης) – 보호자·후원자. 2절.
- aspazomai(ἀσπάζομαι) – 문안하다. 3-16절 거듭.
- synergos(συνεργός) – 동역자. 3·9·21절.
- skandalon(σκάνδαλον) – 거치는 것·덫. 17절.
- eirene(εἰρήνη) – 평강. 20절.
- doxa(δόξα) – 영광. 27절.

## 6 – (2) 문학 구조

- 천거(1-2) → 문안(3-16) → 경계(17-20) → 인사·송영(21-27)의 네 묶음.
- "문안하라"(aspazomai) 후렴 – 단 전체를 꿔.
- 세 매듭 – 입맞춤(16)·평강(20)·영광(27).
- 25-27절 한 문장의 긴 송영 – "아멘"으로 닫힘.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1절 "일꾼"(diakonos)은 후대 "집사" 번역과 닿는 단어(배경).
- 22절 더디오는 받아 적은 대필자(amanuensis) – 당시 서신 작성 관습(배경으로만).
- 20절 "사탄을 발 아래 상하게"는 창 3:15 어구와 닿음(배경).

## 6 – (4) 교차 참조 노트

- 롬 16:20 ↔ 창 3:15 (머리를 상하게 함)
- 롬 16:3 ↔ 행 18:2-3 (브리스가와 아굴라)
- 롬 16:25 ↔ 롬 1:5 (믿어 순종하게)
- 롬 16:26 ↔ 롬 1:2 (선지자들의 글)
- 롬 16:1 ↔ 롬 15:7 (서로 받으라 → 뉘뉘를 받으라)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한 사람이 먼저 한 여성을 천거한다.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뉘뉘를 받으라. 그가 여러 사람의 보호자였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다 –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에베네도에게, 마리아에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이름이 끝없이 이어지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로 묶인다. 톤이 한 번 단단해진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살피고 떠나라." 곧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고 위로한다. 함께한 동역자들이 인사를 보탠다 – 디모데, 누기오, 받아 적던 더디오까지. 마지막으로 긴 송영이 감긴다.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난 비밀을 따라...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송영으로 한 권이 닫힌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서로 문안하라 – 영원하신 분께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 초벌 부제: "한 사람의 이름에서, 영원하신 분께 드리는 송영까지"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대필자 관습·창 3:15·긴 송영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4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일꾼 뵤뵤"."유니아"가 직제·성별 논쟁으로 굳지 않도록 → diakonos 어휘·사본 사실만 기록.
- 17-20절 경계를 분파 신학 강론으로 번지지 않게 → skandalon 위치만 보존.
- 25-27절 송영을 비밀론 단정으로 확대하지 않고 한 문장 구조만 기록.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로마서 16장은 일꾼 뵤뵤를 천거하는 데서 열어, 스물여섯 이름의 긴 문안을 못으로 박고, 한 번의 경계와 "평강의 하나님"의 약속을 지나, 영원하신 분께 드리는 송영으로 한 권을 닫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먼저 한 여성을 천거한다. "젠그레아 교회의 일꾼 뵤뵤를 받으라. 그가 여러 사람의 보호자였다"(1-2절). 그리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다 —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에베네도에게, 마리아에게..." 이름이 끝없이 이어지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16절)로 묶인다. 톤이 한 번 단단해진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살피고 떠나라"(17절). 곧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20절)고 위로한다. 함께한 동역자들이 인사를 보탠다 — 디모데, 받아 적던 더디오까지(21-22절). 마지막에 긴 송영이 감긴다.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난 비밀을 따라...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 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25-27절). 이름의 행렬과 송영이 한 장 안에, 그리고 한 권의 끝에 나란히 놓인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세 무대 — 천거(1-2)·문안(3-16)·인사·송영(21-27). 경계(17-20) 사이에 김. "문안하라" 후렴.
2 첫 느낌·분위기	따뜻함 — 이름을 불러 줌. 17절 단단해짐. 20·27절 송영.
3 시작과 끝	시작 — 뵈뵈 천거(1). 끝 — 영광의 송영(27). 16·20·27 세 매듭.
4 등장인물·상황·사상	등장인물 최다(스물여섯+동역자). 인사+경계. 사상 = "주 안에서".
5 장면 컷	컷 1 천거(1-2). 컷 2 문안(3-16). 컷 3 경계(17-20). 컷 4 인사·송영(21-27).
6 의문·발견·정보	"문안하라" 다회. 경계의 자리(17). 더디오 직접 인사(22). 창 3:15 닿음(20).
7 동영상	뵈뵈 천거 → 이름의 행렬 → 거룩한 입맞춤 → 경계 → 평강 → 동역자 인사 → 송영으로 흐름.
8 초별 제목·부제	제목 — "서로 문안하라 — 영원하신 분께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부제 — "한 사람의 이름에서, 영원하신 분께 드리는 송영까지".
9 동영상 안 겉기·기도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이라는 송영의 자리에 서서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이름으로 채운 마무리:** 한 권의 긴 논증이 스물여섯 이름의 문안으로 닫힌다. 교리가 사람들의 이름 위에 내려앉는다.
2. **결 2 — 후렴이 된 "문안하라":** aspazomai가 거듭 울리며 단을 끈다(3-16절). 한 동사가 공동체의 얼굴들을 잇는다.
3. **결 3 —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천거(1절)에서 송영(27절)으로, "아래"의 이름에서 "위"의 영광으로 한 장이 솟는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롬 15:7** (서로 받으라 → 뵈뵈를 받으라), **롬 1:5** (믿어 순종하게), **롬 1:2** (선지자들의 글).
- 다른 권 — **창 3:15** (머리를 상하게 함), **행 18:2-3** (브리스가와 아굴라).
- 정경 흐름 — 16장의 송영은 1:1-7의 인사와 수미를 이루며, 로마서 한 권을 영광의 한 줄로 닫는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한 사람이 "일꾼 뵈뵈를 천거하노니"라는 한 이름 앞에 선다.
- **멈춤 1:** 끝없이 이어지는 이름의 행렬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분쟁을 일으키는 자를 살피라"는 한 번의 경계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라는 약속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이름의 행렬과 송영이 한 장에, 한 권의 끝에 있다\*는 결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영원하신 분께 드리는 송영 앞\*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일꾼 뵤뵤를 너희에게 천거한다
- [x] 스물여섯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다
- [x]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한다
- [x] 분쟁을 일으키는 자를 살피고 떠난다
- [x]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
- [x] 동역자들이 인사를 보낸다
- [x] 끝은 영원하신 분께 드리는 송영이다

로마서 한 권에서 가져갈 한 단어: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 미해결 질문

로마서 16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한 권을 이름의 행렬로 달는가?

- 긴 논증 끝에 스물여섯 이름이 줄지음.
- 이름으로 달는 까닭은 본문이 못 박지 않음. 위치만 보존.

Q2. 따뜻한 문안 한 가운데 경계(17-20)가 끼어든 까닭은?

- 인사 사이에 단단한 한 토막이 들어옴.
- 자리의 까닭은 보류.

Q3. "일꾼"(diakonos)과 "보호자"(prostatis)는 뵤뵤의 무엇인가?

- 한 여성에게 두 호칭이 붙음.
- 두 호칭의 범위는 답하지 않고 어휘만 기록.

Q4. 더디오의 직접 인사(22)는 왜 끼어드는가?

- 받아 적던 대필자가 직접 문안함.
- 삽입의 자리는 묵상으로 이월.

Q5. 20절 "발 아래 상하게"는 어디서 온 어구인가?

- 창 3:15의 "머리를 상하게"와 닿음.
- 연결의 정도는 보류, 어구만 기록.

Q6. 25-27절 긴 송영은 왜 한 문장인가?

- 비밀의 나타남이 한 문장으로 감겨 "아멘"에서 닫힘.
- 한 문장의 까닭은 묵상으로 이월, 구조만 기록.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로마서 한 권의 관찰도 여기서 닫힌다.

